

아샤-로즈 미기로(Asha-Rose Migiro)

토라야 아흐메드 오바이드(Thoraya Ahmed Obaid)

레이첼 마얀자(Rachel Mayanja)

샤를리즈 테론(Charlize Theron)

테오 벤 구리랍(Theo-Ben Gurirab)

피아 카예타노(Pia Cayetano)

라지 룸바(Raj Loomba)

에밀리 트라우트만(Emily Troutman)

이외의 저명작가들...

여성 임파워링, 현재까지의 성과

Women Empowering Progress or not?

₩ 6,000원



ISBN 978-89-962544-4-7
ISBN 978-89-962544-3-0(세트)



UN CHRONICLE

유엔크로니클

2010년 제1호



여성 임파워링, 현재까지의 성과

Women Empowering Progress or not?



A. Madhwa

에딧더월드



UNDER-SECRETARY-GENERAL FOR COMMUNICATIONS
AND PUBLIC INFORMATION
Kiyo Akasaka

DIRECTOR OF PUBLICATION
Eric Falt

EDITOR-IN-CHIEF
Ramu Damodaran

MANAGING EDITOR
Russell Taylor

EDITOR
Vikram Suria

DIGITAL ART AND DESIGN
Laura Frischeisen

EDITORIAL ASSISTANTS
Aldo Henriquez, Karen Sholto

INTERNS
Sacha Allen Ghiglione

유엔크로니클 한국팀

프로젝트 매니저 | 한재운

총괄 매니저 | 이윤섭

운영관리팀 | 윤아름(팀장), 임소정

기획마케팅팀 | 황인애(팀장), 김현수, 김자영, 박수영, 김태성

콘텐츠관리팀 | 강예경(팀장), 김단영

자문위원 | 김재훈, 박수연, 이지영, 엄영선, 정태민, 정성훈

김수위원 | 강영관, 김은혜, 송신혜, 장선영

홍보위원 | 김윤호, 조용호, 박복원, 박철수, 오경수, 김영남,

유운산, 정희순, 김경옥, 김진숙, 임혜경

협력기관 | 유엔과국제활동정보센터(CUNA), 가운누리, 유엔학생협회

공동제작 | 이종현, 하재웅

디자인 협조 | 박정하

이메일 | untoday@unchronicle.org

트위터 | @UN_Chronicle

발행일 | 2010년 9월 17일

발행처 | 에잇더월드

편집인 | 이법진

마케팅 | 백현모

디자인 | 윤동혁

기획 | 김정태

주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444-31

전화 | 070.8650.2271

팩스 | 0505.627.0871

이메일 | kumter@naver.com(영문), socialshing@gmail.com(영문)

출판신고 2009년 3월 24일 제302-2009-000022호

ISBN 978-89-962544-4-7

978-89-962544-3-0(세트)

UN Chronicle, Volume XLVII No.1, 2010

©2010 United Nations for the English edition

©2010 United Nations for the Korean edition

All worldwide rights reserved



에잇더월드란?

국제활동 분야의 공공재 확충을 목표로 국제전문인력 양성에 꼭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증진하는 사회적 출판사입니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제활동을 준비하는 한국 청년들의 필요와 열정을 자원으로 삼아, 이들에게 저자와 역자, 기획과 마케팅을 진행할 기회를 부여하는 휴먼벤처회사입니다. 에잇더월드는 도서출판 꿈꾸는터와 함께합니다.

유엔크로니클 한국어판은 유엔을 대신하여 국내에 유엔을 널리 알리기 위해 출판되었습니다.

The work is published for and on behalf of the United Nations.

유엔크로니클의 한국어 번역은 유엔의 공식번역이 아니며 에잇더월드에 책임이 있습니다.

The present work is an unofficial translation for which the publisher accepts full responsibility.

유엔크로니클의 내용은 저자 자신의 견해이며, 본문과 지도 등에 사용된 명칭이나 경계들은 유엔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The UN Chronicle is not an official record. The views expressed in individual articles, as well as the boundaries and names shown and the designations used in maps or articles do not necessarily imply official endorsement or acceptance by the United Nations.

2 아이티 여성들과 하나가 되어야 할 때

아샤-로즈 미기로(Asha-Rose Migirot)

4 세상을 비추는 거울, 엄마

에밀리 트라우트만(Emily Troutman)

5 인간이 언제 자신의 존엄성을 저버리게 되는가?

샤를리즈 테론(Charlize Theron)

7 여성 폭력 근절을 위한

유엔 각 기관의 공동 대응

토라야 아흐메드 오바이드(Thoraya Ahmed Obaid)

10 여성에 대한 폭력 대처

타키와 마누(Takiyawa Manuh),
아돌프 아우쿠 베코(Adolf Awuku Bekoe)

14 무력 충돌과 여성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호 채택
10주년을 맞이하여

레이첼 마얀자(Rachel Mayanja)

UN CHRONICLE

Volume XLVII • Number 1 • 2010

유엔크로니클 한국어판 (2010 제1호)

17 전쟁 전술로서의 성폭력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888호: 후속 조치

앤네-마리 고츠(Anne-Marie Goetz), 롭 젠킨스(Rob Jenkins)

20 여성을 위한 사회보장

라니아 안톤오폴러스(Rania Antonopoulos)

25 미디어, 그 속에 여성은 없다

리자 그로스(Liza Gross)

28 배경이 되는 삶

코너 휴지스(Connor Hughes), 앨런 마크만(Allan Markman)

31 정치와 여성,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투쟁

테오 벤 구리랍(Theo-Ben Gurirab),

피아 카에타노(Pia Cayetano)

36 빈곤근절을 위한 여아교육,

여아교육을 위한 빈곤근절

훈앵구(Hoong Eng Khoo)

38 미망인의 삶, 잊혀진 사람들

라지 롬바(Raj Loomba)

40 마그다 이야기

디디에 파신(Didier Fassin)

44 모든 것이 무너져내릴 때

루시 에커맨(Ruthie Ackerman)

46 멀고 험난한 난민 삶의 여정

멀키 알 샤마니(Mulki Al-Sharmani)

50 인신매매: 예방, 기소, 보호

루스 디어리(Ruth Dearnley), 스티브 초크(Steve Chalke)

54 여성인권에 대한 소고

프란시스카 드 한(Francisca de Haan)

아이티 여성들과 하나가 되어야 할 때

아샤-로즈 미기로(ASHA-ROSE MIGIRO)

고향 탄자니아에서 국회의원을 지내던 2002년, 지진이 도도마(Dodoma)를 뒤흔들었던 때를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강력한 떨림에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고 그저 본능적으로 뛰쳐나올 뿐이었다. 운이 좋아 약간의 상처만 입었지만, 이 사건으로 나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아이티를 폐허로 만들었던 지진은 그날의 기억을 생생히 불러일으켰고, 내 마음은 동료와 지진으로 심한 피해를 본 아이티 사람들에게로 가 있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전 세계 수백 만의 사람들에게서 깊은 공감과 상당한 원조를 이끌어냈다. 세계가 연대했던 이 사건은 유엔의 역할과 재난의 영향뿐 아니라, 즉각적인 대응을 넘어 생존자들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공동체적 책임에 대해 반추하게 된 계기였다.

재난의 최대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과 아동이다. 어머니들은 자녀를 팔아 안고, 급히 챙겨 나온 소지품들을 머리에 이고 피할 곳을 찾아 먼 거리를 걷는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너무 어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모르는 아이들은 종종 이수라장 속에서 부모를 잃어버렸다.

고난에 지친 여성들이 구호기관 캠프에 도착하면 늘 그랬듯 생존과 양육을 위한 노동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여전히 가족들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져야 하지만 이제는 훨씬 더 악화된 환경 속에서 가족들을 돌봐야만 한다.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부딪친 여성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피난처, 옷과 식량을 구하려고 필사적으로 애쓴다. 이것은 강도부터 성 학대에 이르기까지 온갖 새로운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미지의 땅에 발을 내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마 그 어떤 생존자들보다도 출산으로 쇠약해진 어머니들을 보고 있는 것이 더욱 가슴 아플 것이다. 임신 중인 당신이, 당신뿐 아니라 당신 안에 자라고 있는 연약한 생명에 대해 염려하고 있는 상황을 잠시 생각해보라.

재난이 휩쓸고 간 공원 벤치나 나지, 자동차, 텐트 안에서 물도 없이, 더욱이 의료지원은 꿈도 꾸지 못하고 아기를 낳아야 하는 임신부들의 가슴 저미는 이야기는 재난이 닥친다할지라도 삶은 계속된다는 사실을 절절

재난의 최대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과 아동이다.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팔에 안고,
급히 챙겨 나온
소지품들을
머리에 이고
피할 곳을 찾아
먼 거리를 걷는다.

아샤-로즈 미기로 유엔사무부총장

Time for Solidarity With Women of Haiti

히 일깨워준다. 생명을 세상에 내놓으면서도 위험에 놓이게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다.

유엔인구기금(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은 아이티 지진발생 이후 출산할 예정인 임신부가 63,000명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 UNPF는 아이티의 미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임신부들과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진이 일어난 직후 유엔사무총장은 어려움에 빠진 아이티 국민들을 돕기 위해 유엔조직뿐 아니라 국제사회를 동원하고자 신속하게 움직이며 뛰어난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재난이 휘몰아치고 나면 극심한 고통이 시작된다. 하지만 예방하고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계획을 세울 때에는 여성과 아동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왜 여성과 아동이란 말인가? 어머니가 겪는 고통이 무엇이든 그 자녀도 똑같이 고통받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굶주리면 아기들은 젖을 먹을 수 없다. 어머니가 쉴 곳이 없으면 아이들도 밖에서 자야만 한다. 어머니가 떨감이나 물을 구하려 가면 아이들도 어머니를 따라나서야 한다. 어머니가 학대받으면, 아이들도 폭력으로 고통받고 끔찍한 고난의 목적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는다.

자연재해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제대로 예방하고 여성과 아동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인다면 재해의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임신 중인 어머니의 걱정과 두려움을 떠올릴 수 있다면, 위기상황에서도 안전한 출산을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과 임신부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한 특별한 주의, 자녀의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여성들의 특별한 필요사항들을 이해한다면, 충족시킬 방안 역시 강구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재난을 모든 차원에서 분석하고, 최대한 예방하며 대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양성평등 인지적 관점의 적용이 요구된다. 재난이 닥치면 식량뿐 아니라 의료 서비스, 교육과 생산적인 미래를 만들기 위한 수단까지도 필요하다.

이것이 아이티 재난에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아이티 국민들은 연속된 환난으로 고통받아 왔다. 그들이 지진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더욱 굳건하게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UNF** (번역자: 강예경)

아마 그 어떤
생존자들보다도
출산으로 쇠약해진
어머니들을
보고 있는 것이
더욱 가슴 아플 것이다.
임신 중인 당신이,
당신뿐 아니라
당신 안에 자라고 있는
연약한 생명에 대해
염려하고 있는 상황을
잠시 생각해보라.

세상을 비추는 거울, 엄마

In Haiti ... The World From Her Mother's Side

에밀리 트라우트만(EMILY TROUTMAN)

지진이 집을 뒤흔들자 10살 데시카는 집 밖 작은 골목 뒤 들판으로 뛰쳐나왔다. "혼자 나왔나?" 나는 물었다. 데시카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엄마와 언니, 오빠를 기다리지 않았나?" "아니오, 그냥 뛰었어요."

데시카의 엄마 마릴루드는 딸을 바라보며 고개를 고덕었다. "그 순간 우리는 각자 뛰어나갔어요."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이야기하였지만 내면에는 침통함이 엿보였다. 아이티의 모든 사람들, 특히 마릴루드의 마을 사람들은 죽음이 예고 없이 아무에게나 찾아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어떤 이들은 운이 좋았지만 어떤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

마릴루드는 지진이 일어난 지 2주가 지나서야 첫 식량배급을 받을 수 있었다. 유엔식량계획이 제공한 쌀 25킬로그램이 든 자루로, 월드비전이 나눠준 것이었다. 이 쌀로 여섯 아이에게 음식을 해 먹일 것이다. 막내는 5살배기 쌍둥이, 큰 아이는 22살이다. "그리고 사실 난 임신 중이에요." 그녀는 말했다.

유엔은 수도 포르토프랭스 안팎의 16개 배포처에서 2주 안에 2백만 주민에게 식량을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배급을 늘리기 시작했다. 유엔과 협력기구들은 안전하고 정확한 식량전력 이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들과 고아들, 임신부들을 우선하여 지원하면서 점차 속도를 올리고 있다.

몇 주 동안 먹을 이 식량은 재난이 급습한 후 처음으로 마릴루드의 가족들에게 안도감을 주었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마릴루드는 아이들과 함께 집에 있었다. 파편들이 떨어져 다쳤지만 아이들은 괜찮을 거라고 믿었다. 솔직히 말하면 아이들을 먼저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마릴루드는 아직도 아빠가 죽었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애쓴다. 1월 12일 그녀의 남편은 캐리브 해 시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장소였고 남편의 시신은 수습되지 못했다. 어린 자녀는 아버지의 죽음을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있다.

이제 가족들은 지진으로 집을 잃고 데시카가 뛰쳐나갔던

들판에서 살고 있다. 한때 형 비었던 도시는 하얀 시트로 뒤덮였고, 수백 명의 곤궁한 주민은 음식과 물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텐트 밖에 있을 때 마릴루드는 도난방지를 위해서 귀중한 쌀자루를 옷가지와 소지품들로 덮고 다닌다. 텐트로 돌아와 손에 든 자루를 두고는 이내 그녀의 얼굴에 기쁨이 번진다. 그녀는 자랑스러운 사냥꾼이자 좋은 엄마이며 베풀을 아는 여성이다. 지난 2주 동안 그녀는 매일 줄을 서고 정부청사 밖에서 기다렸으며 필사적으로 가족을 옹호하고 식량 배급 명단에 올리기를 위해 노력했다. 마릴루드는 캠프에서 배급을 받은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이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을 도와주었던 주위의 엄마들과 식량을 나누는 것이 자신의 의무 중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데시카는 이웃 텐트에 살고 있는 게를린과 함께 가끔 밥을 먹는다고 했다. 홀로 두 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게를린은 이번 주 데시카와 밥을 먹을 때까지 쪽 외상으로 음식을 사왔다고 했다.

그녀들의 앞날은 불투명하다. 지진이 일어나기 전, 마릴루드와 게를린은 소규모 노점상으로 일했지만 지금은 일하는 대신 자녀를 돌보고 있다. 처음 배급받은 이 쌀로 가족들에게 음식을 해 먹이며 마릴루드는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만큼 안정감을 느꼈을 것이다.

몇 주, 몇 달 동안 마릴루드를 비롯한 캠프의 여성들은 매일 교대로 몇 킬로미터 떨어진 배급처에 다녀와야 한다. 데시카는 엄마를 따라가 엄마가 소리 치고 기다리고 식량을 나르며, 요리하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 모습을 지켜볼 것이다.

데시카는 포르토프랭스에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해하기에는 아직 어렵다. 이 10살 소녀에게는 엄마가 겪는 세상이 세상의 전부이다. 데시카는 고난과 봉고를 목격하였다. 그리고 '쌀 한 자루'와 '오늘'을 본다. **UNC** (번역자: 강예경)

에밀리 트라우트만 주로 인도주의 이슈들을 다루는 작가 겸 사진가. 2009년 10월 유엔시민대사로 임명, 아이티 여정을 함께할 수 있는 트위터(www.twitter.com/emilytroutman)

인간이 언제 자신의 존엄성을 저버리게 되는가?

샤를리즈 테론(Charlize Theron)



일생 동안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나에게 큰 축복이었다. 다양한 세상을 직접 보고 체험하는 것이 나에게 그 무엇보다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되어 주었으며, 2009년 콩고를 방문했을 때 나는 너무나도 어려운 교훈을 얻었다. 콩고는 9개의 국가와 국경을 접하며 200개가 넘는 종족들이 살고 있어 말 그대로 아프리카의 심장이라 불리는 나라이다. 하지만 지금 이 나라는 큰 위기에 봉착해있다. 수많은 민병대와 정치적 혼란이 그 토지와 많은 국민을 피해하게 만들고 있고 그 중에도 특히 여성들과 어린 소녀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수많은 여성과 어린 소녀들이 미처 들어보지 못한 상상할 수도 없는 정도의 구타, 고문 그리고 강간이라는 잔혹 행위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콩고에 머무는 동안 동쪽 국경에 위치한 부카부 시에 있는 판지 병원을 방문했다. 이 도시는 성폭력 피해가 가장 극심한 지역으로 알려졌다. 이 병원은 수많은 피해자들의 유일한 안식처이며, 이 병원의 원장인 무케지 박사는 내가 지금껏 만나본 사람 중 가장 성자에 가까운 사람이었다. 이 병원은 기본적인 내외상 치료와 정신과 치료 외에, 질과 직장 손상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에게 수술을 해주고 있다. 이 같은 수술은 이 수술 없이는 평생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만성전염병으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여성들과 어린 소녀들에게는 그야말로 기적과 같은 일이다.

이 여성들의 상처는 단순한 폭력과 거듭되는 강간으로 인한 것일 뿐만 아니라, 칼, 총과 같은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인위적인 성기 손상으로 인한 경우가 더욱 흔하다. 이러한 잔혹 행위는 그 여성의 가정뿐만 아니라 해당 공동체 전체에게 모욕감을 주고 가정을 파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

샤를리즈 테론 여배우, 여성 폭력 타파를 위해 노력하는 유엔 평화 혁신자

어떠한 문제가 너무나 크고 복잡할 때, 우리는 어디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내가 깨닫게 된 신념은 우리가 장소에 상관없이 어디서든 무엇이든 일단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이 글을 읽으면서 당신의 인류애를 생각해 보라. 잠깐이라도 당신, 당신의 여형제, 어머니 혹은 당신의 딸이 그와 같은 처참한 상황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당장 어떤 행동이라도 실천하지 않겠는가?

만, 이러한 폭력은 끝이 없어 보인다.

이런 학대를 당하고 나면, 피해 여성의 몸과 마음은 결코 이전과 같이 회복될 수 없다. 이런 일을 목격할 때 마다 나는 어떻게 한 인간이 같은 인간에게 이런 끔찍한 행위를 저지할 수가 있으며, 인간이 그들의 존엄성을 저버리게 되는 때는 언제인가 라는 질문을 떠올리게 된다. 그리고 이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특히 가족들의 외면과 버림을 당했을 때, 이들이 어떻게 다시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자신에게 해보았다. 그들은 과연 누구를 의지해야 하나? 비록 그 여성들의 신체적 상처가 아문다고 하여도, 그들 공동체와 가족의 지지와 자신들의 생계를 꾸려 나갈만한 특별한 기술 및 자원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절망에 쇠약해져 간다. 때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그 규모와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하고 엄청난 보인다.

콩고 유엔임무단(United Nations Organization Mission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본부에서 Bukavu 시 비영리 단체와 일을 하고 있는 여성들을 만날 기회를 가졌다. 이 여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너무나 아팠다. 한 여성은 그들은 변화와 희망을 위해서 싸우고 싶지만 더는 누군가에게 희망을 걸고 의지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누구도 믿을 수 없어서 고립감과 무기력함을 느낀다고 했다. 나는 그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그들의 이야기와 상황을 들으며 그녀들이 느끼고 있는 무기력감을 나 또한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떠한 문제가 너무나 크고 복잡할 때, 우리는 어디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내가 깨닫게 된 신념은 우리가 장소에 상관없이 어디서든 무엇이든 일단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이 글을 읽으면서 당신의 인류애를 생각해 보라. 잠깐이라도 당신, 당신의 여형제, 어머니 혹은 당신의 딸이 그와 같은 처참한 상황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당장 어떤 행동이라도 실천하지 않겠는가? 우리 세대가 결코 바꾸지 못할 문제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다. 하지만 많은 여성들이 현재 우리 옆에서 고통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 여성들은 우리를 필요로 하며 우리는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부카부 시에서 크리스틴 술러 데쉬레버를 만나 그녀의 브이데이(V-Day) 경험을 들었을 때, 나는 변화의 가능성을 보았다.

브이데이는 여성과 어린 소녀에 대한 폭력을 퇴치하기 위한 국제적 운동이다. 그들은 세계를 돌아다니며 여러 지역 단체들과 공동으로 지원을 호소하고 성명을 발표하며 교육을 실시하여 남성과 여성들이 폭력 근절에 앞장서도록 고무시키는 일을 한다. 크리스틴은 콩고에 있는 여성과 어린 소녀들을 돕는 일에 그녀의 생애를 바쳤고, 우리가 만났을 때 그녀와 브이데이 팀은 부카부 시에서 시티오브조이(City of Joy)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열중하고 있었다. 시티오브조이는 성폭력에서 벗어난 아들에게 아주 특별한 시설 공간이다. 이 시설은 단체 치료, 춤, 성교육, 자기방어 및 경제교육과 같은 프로그램들을 통해 여성들의 치료와 함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사회성과 리더십을 개발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 시설이 지어질 부지를 보고 계획들을 들었을 때 나는 이 일이 사회에 변화를 가져올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콩고의 여성들이 처해 있는 실태를 이해하고 판지 병원과 브이데이 프로젝트를 지원해주기 바란다. 나는 이 기구들의 활동을 보장하며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리라는 것을 약속하고 싶다.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해 수십 마일을 걸은 여성에게 그 병원이 그녀가 쉬 수 있는 침대 하나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강간을 당하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은 13살 소녀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자가 한 남자를 믿고 결혼해서 그들의 아이가 세상의 남자, 여자가 모두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도록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unc** (번역자 : 정태민)

여성 폭력 근절을 위한 유엔 각 기관의 공동 대응

United Nations Agencies Forward together in the response to violence against women

토라야 아흐메드 오바이드
(THORAYA AHMED OBAID)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만연되어 있으면서도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은 인권 유린의 형태인 여성 폭력의 근절을 위한 움직임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다양한 연구 조사에 의하면 70%의 여성들이 살아가며 육체적, 혹은 성적 폭력을 여러 형태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지역공동체, 시민사회, 정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여성의 건강, 존엄성, 안전, 그리고 자율권을 침해하는, 또한 사회 전체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관습을 종식하기 위하여 전 세계 어디에서나 힘을 기울이고 있다. 유엔은 협력기관들의 이러한 노력을 후원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고 있다.

토라야 아흐메드 오바이드 유엔연구기금 사무총장

지도층 네트워크

2009년 11월 24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여성 폭력의 근절을 위하여 공개적으로 나선 인사들로 구성된 '지도층 네트워크'를 발족하였다. 이 모임에는 브라질 소설가 파울로 코엘류, 스페인 총리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즈 자파테로, 전직 칠레 대통령인 리카르도 라고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 그리고 이외에도 점점 커져가고 있는 전 세계적 동참의 목소리에 함께하게 될 많은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새로운 네트워크는 2008년 창설된 유엔사무총장의 '여성 폭력 종식을 위한 연대' 캠페인의 일환이며, 이 캠페인은 현재 다양한 유엔 조직 및 전 세계에서 여성 폭력 종식을 위한 활발한 자극제로서 역할하고 있다. 그간 여러 국가의 여성 단체들에 의해 이루어져온 활동들을 기반으로 하여 관련 활동들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구체적인 실천들을 구현하기 위한 유엔 조직 전체에 걸친 노력이 이 캠페인은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폭력 종식을 위하여 강력한 법안 및 다방면에 걸친 실천 계획과 예방 조치의 수립, 자료 수집, 체계적인 노력의 실천 등을 모든 국가들이 2015년까지 이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한 정부, 비정부기구, 여성단체, 지역사회단체 및 여타 네트워크들의 노력은 지난 수년간에 걸쳐 갈수록 증대됐다. 오늘날에는 여성 폭력의 본질과 범위, 그리고 여성 폭력이 여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졌다. 각 국가 단위,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 관련된 법적, 정책적 틀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폭력이 지속되도록 일조하고 있는 막대한 처벌 체계와 차별적 관습을 없애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

현재까지도 여성에 대한 폭력의 문제는 많은 부분 침묵에 싸인 채 감추어져 있다. 여성 3명 중 1명은 구타, 강압적 성관계, 혹은 그 외의 방식으로의 학대를 경험한 적이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주변인으로부터 이러한 폭력을 당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폭력은 인권을 유린하고, 발전을 저해하며, 사회적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평화의 구현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하며, 피해자들에게는 관심과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지도층 네트워크' 캠페인과 이외의 다른 많은 노력을 통해 여성 폭력을 둘러싸고 있는 침묵을 타파해나가고 있으며, 여성 폭력의 문제가 단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포괄적 대응이 마련되어야만 하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이슈임을 분명히 밝혀나가고 있다.

10개 시범 국가

광범위한 분야의 프로그램과 다양한 기관을 갖추고 있는 유엔은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과 충분한 재정적 능력을 뒷받침 삼아 하나의 목표를 위해 포괄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유엔은 통합적이며 다양한 방면에 걸친 프로그램 진행을 목표로 10개 시범 국가*를 지정하였다. 이들

국가에서는 특히 법률, 서비스 제공, 여성 범죄 예방, 관련 자료 수집 등의 분야에 중점을 두고 기존 프로그램 및 실천 역량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공동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였다. 다른 여러 국가들도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유엔의 여러 프로그램들 이외에도, 별

도로 마련된 '여성 폭력 근절을 위한 유엔신탁기금'을 통해 4천 4백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 119개 국가 및 지역의 정부, 시민단체 및 지역 기관들의 300개가 넘는 프로그램에 지원되었다. 본인이 수장으로 있는 유엔인구기금은 이들 프로그램들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시범 국가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후원하고 있다. 한 예로써, 인도네시아와 온두라스에서는 여성 관련 폭력 사례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경찰 및 종교 관련 단체에 제공하였다. 과테말라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역정부 간의 협력 및 시너지 효과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진전을 이룰 수 있었다. 인도와 네팔에서는 각국 협력기관들이 여성 폭력 대처 방안의 첫 단계로서 의료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펼쳤다. 그리고 캄보디아에서는 가정 폭력 관련 법안이 2007년에 채택되었다. 여성 관련 폭력의 대처 방안이 캄보디아

*부르키나 파소, 칠레, 피지, 자메이카, 요르단, 키르기스스탄, 파라과이, 필리핀, 르완다, 예멘.

국가개발계획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여기에는 양성 평등과 여성의 권익 강화를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천년 개발목표 3'의 달성 정도를 점검하기 위한 '가정폭력지표'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유엔은 전 세계적으로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국가 간 격차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여성 폭력 관련 데이터베이스로서는 여성 폭력 종식을 위한 유엔 회원국 각국의 조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원스톱 사이트(one-stop site)'가 2009년에 출범되었다. 또한 여성 폭력 범죄가 처벌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또한 이들 범죄를 허용하거나 관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종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수 사례들을 이 사이트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유엔은 또한 양성 관련 업무를 둘러싼 유엔 조직 내부의 주요 변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유엔 총회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여러 제안들은 현재의 여러 유엔 조직들을 양성 평등 촉진 및 여성 폭력 대응을 위한 유엔의 노력을 한층 강화시킬 역동적 단일 기구로 대체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 변화는 여성의 육체가 전쟁의 희생양이 되고, 적대국의 사회적 토대를 분열시키며 지배력을 강화하고 모욕을 주기 위한 전쟁의 방편으로써 강간이 자행되는 분쟁 상황에서 더욱더 큰 중요성을 갖게 된다.

안보와 여성 문제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2000년에 채택한 '1325호 결의안'을 통해 전쟁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처음으로 다루었으며, 이를 통해 분쟁 해결 과정에서의 여성 관련 이슈 수용 및 평화 수립에서의 여성의 핵심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 '1325호 결의안'은 1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다. 이로부터 8년 후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1820호 결의안'을 통해 성폭력이 안보관련 이슈이며, 따라서 안보적 관점에서의 대응이 필요함을 인정하였다. 또한 2009년 안전보장이사회는 여성의 보호 강화 및 분쟁 종결 후 평화 수립 단계에서의 여성 배제 문제 해결을 위한 두 개의 결의안 '1888호' 및 '1889호'를 통과시킴으로써 무장 분쟁 상황

에서의 여성에 대한 책임성 문제를 더욱 깊이 있게 부각시켰다. 안전보장이사회는 또한 관련 이슈들의 해결을 위해 일관성 있으며 전략적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특별대표를 임명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하였다.

이들 결의안은 분쟁 해결, 평화의 수립 및 정착에 있어서의 여성 참여를 확대하고, 또한 성(性) 관련 및 출산 관련 보건, 분쟁 상황에서의 여성 폭력 예방, 그리고 실제 분쟁 발생 시 여성의 보호 등과 관련된 확실한 기초적 틀을 제공하고 있다. "강간 근절: 분쟁 상황에서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유엔 활동" 캠페인도 활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분쟁 상황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기 위한 시민사회, 정부기관 및 기타 협력단체들에 의한 풀뿌리 차원에서의 프로그램들도 그 수가 늘고 있다.

이들 모든 프로그램은 매우 고무적이긴 하지만 보다 많은 노력이 더해져야 할 필요성 또한 간절한 현실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의 근절은 모든 차원에서 보다 우선순위로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며, 여기에는 지역사회의 활동을 후원하기 위한 보다 강화된 노력도 포함된다. 정치적 결단력의 확대도 더욱 필요하며, 관련 재

분쟁 상황에서는 여성의 육체가 바로 전쟁터가 되고, 적대국의 사회적 토대를 분열시키며 지배력을 강화하고 모욕을 주기 위한 전쟁의 방편으로서 강간이 자행된다.

원의 실질적 확대도 필요한 상황이다. 자금으로부터 60년도 전에 유엔의 설립자들은 '우리 인류', 기본적인 인권,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권리 등에 대한 자신들의 확고한 신념을 확인한 바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는 것은 이들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한 단계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의 문제는 단지 여성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우리 모두, 즉 남성,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까지의 모두를 아우르는 문제이다. 또한 이 사안은 개별 국가들의 문제인 동시에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여성 폭력의 문제가 현재에는 널리 퍼진 문제이지만 앞으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문제가 되도록, 또한 용인될 수도 있는 사안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 되도록, 관련 범죄자가 처벌을 받지 않던 시대에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시대로, 피해자는 고통만을 받던 사회에서 후원을 받는 사회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여성 폭력을 과거의 역사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세계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UNC (번역자: 정성훈))

여성에 대한 폭력 대처

Confronting Violence Against Women

타키와 마누(TAKYIWAA MANUH),
아돌프 아우쿠 베코(ADOLF AWUKU BEKOE)

여성들은 성차별적 폭력을 어떻게 대처해왔나? 여성들은 그들의 순결을 보호하고 정의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동맹을 만들기 위하여 어떠한 행로와 전략을 발전시켜 왔나? 어떻게 그들의 노력이 지지를 받고 더욱 확대될 수 있었나?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은 인종, 계급 그리고 민족성을 초월하는 최악의 학대이자 차별행위이다. 여성폭력은 육체적, 성적, 심리적, 경제적으로 여러 형태를 취하지만 이러한 여러 형태의 폭력은 또 다른 형태의 폭력으로 전이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모든 형태의 여성에 대한 폭력은 보통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성과 소녀의 인신매매와 같은 형태의 폭력행위는 국경접근 지역에서 흔히 발생한다. 매년 2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춘

이나 강제노역, 노예 혹은 노예의 상태로 매매되고 있고 그들의 대부분은 '지구의 남부'에 해당하는 150개국 이상의 국가 출신들로 알려졌다. 성차별적 폭력행위는 여성의 안전, 자유 그리고 자주성을 위협함으로써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며,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들의 잠재력을 실현하여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고 있다.

3명 중 1명

성차별에 관한 국가별 통계수치가 일정하지는 않지만, 평균적으로 3명 중 1명의 여성이 평생 폭력, 강제적 성관계 또는 학대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혼 및 동거의 경험 이 있는 여성 중 30~60%가 그들의 반려자 혹은 동거인에

무엇이 얼마나
효과적이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타키와 마누 가나 대학교 아프리카 학과 조교수 및 이사
아돌프 아우쿠 베코 임상심리학자, 아르 재단 회원, 가나 반폭력법률제정
연합 회원

한 육체적, 성적 폭력을 경험하였고, 10~24세의 어린 소녀 및 여성의 7~48%가 AIDS/HIV를 포함한 전염성 성병의 위험을 수반하며 강제적으로 첫 성경험을 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폭력으로 인한 피해와 그에 따른 대가는 너무나도 크다. 그것은 사회에 만연한 여러 형태의 폭력을 증가시키며 피해 가족과 공동체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동시에 학대를 당한 여성들과 그 자녀의 부양 및 지원과 가해자들을 법적 심판대에 서게 하는 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성들은 자신들의 육체적, 정신적 순결을 범하는 행위를 가만히 지켜보지 않았고 정부 혹은 국제기구의 도움 여부를 떠나 크고 작은 활동을 통하여 성차별적 폭력에 하루하루 맞서오고 있다. 여성들은 가해자의 이름을 밝히는 것을 포함한 사회적 제재 및 처벌, 노래 및 공연활동, 종교단체 활동 및 새롭고 초국가적인 형태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하여 많은 동맹을 구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들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펼쳤다. 또한 사회적 관심을 일깨우고 억압적인 사회구조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제인권법, 국제기관 및 지방조직을 활용하고 있다.

지구촌 남부지역 국가

지구의 남반구에 있는 개발도상국의 여성에 관한 우리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주로 반려자, 동거인 혹은 가족에 의해서 강간과 다음과 같은 성적 폭력이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의 여성 성기 절단 관습, 남아시아의 자침금 갈등으로 인한 살인, 동남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중동에서의 여아 유아살해, 태아 성별 선택 및 계획적인 여아 차별- 여성에게 행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콩고와 기니에서 발생하였듯이, 성차별적 폭력 행위가 분쟁지역에 주둔해있는 유엔평화유지군 혹은 경찰관과 같이 지역 주민의 신뢰를 받는 위치의 사람들에 의해 행해지기도 한다. 이들은 적군들에게 모멸감을 주기 위하여 혹은 지역주민의 공포감을 조장하고 지역사회를 파괴하기 위해 의도적인 전략 중의 하나로 강간, 성희롱, 성 착취 행위에 가담한다.

게다가, 폭력은 정부의 작위적, 부작위적 행위 및 여러 억압과 제재 기관에 의한 군사적 행위와 같은 여러 상황에 의해 국가적 차원으로 행해지기도 한다. 한편 정부의 사회경제 정

책은 대다수의 빈곤층, 여성, 농부들이 빈곤 및 박탈감과 모욕감을 겪도록 내버려두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은 폭력행위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압박은 특히 가난한 여성들이 처해있는 혹독한 현실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많은 여성들이 생계와 생존을 위하여 학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거나 혹은 성거래와 같은 위험한 행위에 가담하고 있다. 심지어 비참한 극빈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때조차, 여성이 경제적 독립 및 사회적 지위를 얻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당하는 한편, 또 다른 여성들은 주술적 행위와 부도덕한 행위로 생계를 이어가는 것에 대한 경멸로 인한 모욕감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다. 2007년 케냐와 멕시코에서는 여성들이 지역 선거에 참여하려 한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을 당하기도 했다. 멕시코에서는 여권 신장을 그들의 전통적인 가부장적 권위를 위협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남편들이 여성들을 구타하여 그들의 지역사회 진출을 좌절시키기도 하였다.

여성의 행로와 전략

과거 여성 시민운동과 여권 신장 단체의 관심사였던 성폭력은 이제 국제적 차원의 세계적 의제로 논의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여성 단체들은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대중의 의식을 향상하고 성차별 및 성폭력에 대한 지역사회의 태도와 관습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네트워크들은 많은 종류의 사회운동을 고무시켜 사회규범, 법, 정책 및 관습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또한 콜롬비아나 콩고와 같은 나

라에서 성차별에 맞서던 여성들이 주목할만한 리더십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

여성들은 국제 인권법의 규칙에 준하는 법을 제정하도록 그들의 국가에 요구하고 있다. 지구촌 남반구의 많은 국가가 이러한 여성의 요구를 수용하여 여성을 향한 성폭력과 성희롱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양성평등 규정을 수용하였고 이러한 법률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제정된 법률들은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고, 법적 조치에 따르는 고비용 탓에, 정작 그 법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많은 정부적 차원의 노력은 충분한 자금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가난한 시외 지역들의 희생 아래 부유한 도시 지역 위주로 불균등하게 퍼져 진행되고 있다. 법과 정책의 효과적인 실행을 저해하는 주요한 원인은 양성평등을 이루고자 하는 정치적인 의지와 약속의 결핍에 있다.

또한 여성들은 형사사법제도에 있어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들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개선점은 판사들과 사법 집행자들의 재교육을 통해 피해자들의 입장을 더욱 세심하게 고려하며 특히 여성폭력에 관한 재판을 진행할 때 국제적, 지역적 인권법률을 적용하는 것, 여성들로 구성된 특별재판소와 경찰서를 만드는 것, 그리고 지역사회 의견의 대변하는 인물들로 구성된 조사 절차 및 기관을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여성이 서로의 경험을 더욱 잘 이해하고 지역주민 여성과 더 효과적으로 대화할 수 있으며 또한 여권 신장의 훌륭한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은 여성들로만 구성된 브라질의 한 경찰서와 여성으로 이루어진 일부 유엔평화유지군의 일화에서 그 설득력을 얻었다. 또한 폭력 피해자들에게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여성들의 보호 시설, 보건소 및 상담시설에서의 활동적인 봉사가 설득력을 얻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것은 기존의 지원서비스가 여성들의 특정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지 않았고 또한 그러한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해당하는 정책이 전무했기 때문이다. 국가적인 지원정책이 없었기에 여성들은 본인을 스스로를 위하여 변화를 실천해오고 있다.

세계의 여성 시민사회 단체들은 성차별적 폭력에 대한 투쟁에 이목을 집중시켰고 이러한 노력은 유엔사무총장의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의 위한 연합 캠페인(UNITE to End Violence against Women campaign)과 유엔인구기금의 성차별 폭력 해결을 위한 행동 전략 및 협약(The Strategy and Framework for Action to Addressing Gender-based Violence of the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기여 하였다. 여기에는 다음의 주제가 포함되어 있다:

→ 처벌의 부재: 현재 존재하는 솜방망이식 처벌은 폐지되어야 한다.

→ 예방정책 및 남성과 소년들의 역할: 많은 단체들이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예방에 집중하고 있으며 또한 남성과 소년들의 책임 있는 역할을 통한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 있어 남성이 또한 모든 결정권을 가져서는 안되며 여성의 리더십을 존중하는 동시에 성차별적 폭력 종식에 있어 남성과

“제정된 법률들은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고, 법적 조치에 따르는 고비용으로 인해, 정작 그 법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소년의 역할을 강조하여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 폭력적 문화 개혁: 지역 사회 내에서 가해자를 옹호하는 전통적, 사회적 태도 및 사회구조가 성차별적 폭력의 근절을 막고 있다. 그러므로 성차별적 폭력과 관련하여 문화적 요소가 논의되는 방식을 재검토하고 소위 '전통적 문화 양식'과 지역사회의 행동양식 및 관습에 의하여 용인되는 여러 형태의 폭력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정보: 다양한 문화권에서 효과적으로 성차별적 폭력을 감소시킨 접근 방법 및 전략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성차별적 폭력 발생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보가 필요하다. 신뢰할 만한 정보조직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정형화된 문서작업을 위한 자원들이 지원되어야 한다.

→ 자원: 성차별적 폭력을 퇴치하기 위한 정부 또는 시민사회 차원의 노력에 합당한 재원이 지원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원은 서비스 지원에서부터 피해자들의 활용이 용이한 사법제도 마련, 그리고 이러한 지원에 대한 효과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지역사회 현장에서 시민들을 직접 접하게 되는 인력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예방 전략 마련까지 포함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 감소는 지역사회 개발과 유엔의 새천년 개발목표 중 특히 성평등 목표를 달성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어야 한다. 지속적인 성차별적 폭력 해결을 위한 정책과 지원은 여성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의 관심과 지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지구촌 남반구 개발도상국가들의 상황에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unc** (번역자: 정태민)

무력 충돌과 여성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호 채택 10주년을 맞이하여

레이첼 마안자(RACHEL MAYANJA)

올해 10월 유엔은 국제 개발에서 역사적 사건이라 할 만큼 중요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호(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채택 10주년을 기념한다.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안 1325는 무력 충돌의 결과로 여성과 여아들이 겪게 되는 고통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그들의 안전과 평화협정 시 그들의 참여를 권고하였다. 비록 결의안의 효과는 더디게 나타났지만, 최근 결의안 목표 달성을 위한 많은 참여와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다.

위대한 침묵

10년 전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처음 이 결의안을 채택했을 때, 이것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묵시되어온 무력 충돌 지역의 여성과 어린 소녀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잔인하며 또한 오랫동안 자행되어온 폭력을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결의안 1325를 채택하고자 하는 원동력은 아주 강하였다. 다른 분쟁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옛 유고슬라비아부터 르완다, 시에라리온, 리비아, 네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최근의 분쟁지역은 여성과 어린 소녀들에 대한 혹독한 폭력으로 얼룩져 있었다. 민간인 희생자 중 70% 가량이 대부분 여성과 어린이로 추정되고 있다. 1994년

레이첼 마안자 양성이수와 여성권익신장에 관한 유엔사무총장 특별자문관

15살인 이소녀는 어머니를 위해 땀을 구하러 갔다가 납치를 당한 적이 있다. 현재 그녀는 우간다 키트검 지역 북쪽에 위치한 유네스코 후원 '키트검여성협회'에서 요양 중이다. 다른 많은 피해자들과 같이 그녀 역시 무거운 짐을 이고 먼 거리를 걸어가도록 강요받았고, 어린 소녀들이 군 지휘관들에게 성노예로 주어지는 것과 몇몇은 살해당하는 것을 목격했다.

© UNICEF/ROGER LEMOYNE

르완다 대학살 사건 중 50만 명에 달하는 여성들이 강간을 당하였다. 또한 6만 명에 달하는 여성들이 크로아티아,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의 전쟁에서 강간을 당했으며 1991년부터 2001년 사이 시에라리온에서는 여성과 어린 소녀에 대한 6만 4천 건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 폭탄과 총알뿐만 아니라 무자비한 인간들의 손과 무장 세력과 그 부대원들의 피해한 정신, 그리고 전쟁의 혼란 속에서 폭력에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되는 통합 인력풀에 후보자 명단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결의안은 나아가 평화 협정 논의와 실행 시에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와 본국 귀환, 재정착, 재건, 복구, 분쟁 이후 재건립 기간 동안 여성과 어린 소녀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포함하여 양성평등 인지적 관점을 함께 고려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므로 이 결의안은 평화와 안보 유지는 물론 평화유지, 평화구축, 분쟁 이후 재건을 포함한 모든 평화구축 과정에 성 이슈가 주류로 편입되는 국제적 체계를 제공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많은 활동가가 이 결의안을 이행하기 위하여 정진하였다. 유엔의 많은 기관이 이 결의안의 전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이행을 위하여 포괄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였다. 약 500여 개의 활동이 실행되어왔고 이중 다수가 무장 분쟁 중, 특히 전쟁 이후 불안정과 지뢰의 위협으로부터 여성의 안전을 지켜왔다. 이 결의안을 정부 간 협력과 유엔 시스템의 조약에 포함시키는 데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이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많은 회원국들이

결의안 실행을 위하여 국가실행계획(National Action Plan)을 채택한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이 과정은 각각의 회원국, 유엔사무국 그리고 지역 기구들이 함께 참여하여 모범적 사례를 공유하며 공동 협력 하에 이루어져왔다.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

그러나 지난 십 년 동안의 이러한 여러 노력에도, 결의안 1325의 실행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결의안 채택 10주년 기념일이 다가오는 지금도 많은 여성과 어린 소녀들은 무력 분쟁 및 충돌 이후의 환경 속에서 성차별적 폭력, 특히 성폭력의 끊임없는 희생양이 되고 있다. 그들은 강간, 고문, 납치의 피해자,

2000년에 채택된 이 결의안은 적대행위 중지에만 제한되었던 안전보장이사회의 관심을 사상 최초로 여성과 여성 공동체에 장기적으로 서서히 가해지는 피해를 다루는 데까지 이끌어냈다.

■ ■ ■ ■

계 폭력을 행사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이웃들로 인하여 여성과 어린 소녀들의 몸은 전쟁터가 되었다.

192개 회원국에 의해 채택된 결의안 1325는 분쟁 지역의 여성의 이미지를 전쟁의 희생양에서 중재자, 평화수호자 그리고 협상가와 같이 적극적인 참가자의 모습으로 완전히 바꾸어놓았다. 그래서 결의안 1325는 사상 처음으로 분쟁지역에서 교전의 중단이라는 통상적인 해결 방안에서 벗어나 여성을 무력하게 만들고 은밀하게 자행되는 여성에 대한 무장 폭력의 장기적인 영향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

여성과 평화협정

결의안 1325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지향한다. 이 결의안은 회원국에게 분쟁의 예방, 관리 및 해결을 위하여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기구의 의사 결정 시 여성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 결의안은 회원국들을 무장 분쟁지역으로 불러 전쟁으로 인한 폭력으로부터 여성과 어린 소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조치를 취하고 장기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한 방법으로 평화 협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결의안은 유엔사무총장에게 그를 대신하여 훌륭한 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여성을 특별 대리인 혹은 특사로 임명하라고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취지에서 회원국에게 정기적으로 업데이트가

그러나 지난 십 년 동안의 이러한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의안 1325의 실행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 ■ ■ ■

굴욕의 대상이 되고 분쟁 이후에는 많은 여성들이 성적 학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혹은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배척당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결의안 1325의 실행은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채택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1888과 1820과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결의안 1325는 결의안 1820의 실

제적 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의안들을 통하여 안전보장이사회는 무력 충돌 시 발생하는 성폭력 행위는 용인될 수 없는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교전 중단으로 여성과 어린 소녀들에 대한 폭력이 종식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분쟁이 끝난 이후, 심각한 수준의 성폭행과 성차별 폭력이 지속하여 여성의 안전과 건강, 생계는 물론 재건 및 평화구축 활동에 참여할 능력에 오랫동안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무장 충돌의 상황에서 여성에

교전 중단으로 여성과 어린 소녀들에 대한 폭력이 종식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분쟁이 끝난 이후, 심각한 수준의 성폭행과 성차별 폭력이 지속된다.

■ ■ ■ ■

대한 지속적인 폭력은 결의안 1325의 목표와 여러 면에서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저해하고 있다. 만약 어린 소녀들이 무장 분쟁 지역에서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악랄한 폭력으로 학교에 출석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그들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은 소년들과 비교하여 동등하지 못하고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이라는 새천년개발목표 두 번째 목표 달성을 위태롭게 한다. 또한 무장 분쟁 시 발생하는 성폭력은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크므로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의 새천년개발목표 6번째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한다. 오늘날 무장 분쟁 시 반드시 수반되는 성차별적 폭력으로 인해 끊임없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여성과 어린 소녀들과도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은 무관한 일일 것이다. 실제로, 새천년개발목표의 3번째 목표인 양성 평등과 여성역량 강화의 달성을 위해서는 전 세계 공동체로 하여금 무력 분쟁 중 여성의 신체가 더는 전쟁의 연장선에 불과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반드시 실천되어야 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결의안 1325를 완벽하게 이행할 수 있을까?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는 무장 분쟁 중 여성과 어린 소녀들의 권리와 신체에 대한 무자비한 침해가 아무런 처벌 없이 지속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세계적인 자각이다. 안전보장이사회와 회원국들은 다시 한번 이 결의안의 완벽한 실행을 다짐

해야 하고, 피해자들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적합한 법안을 구축하고 실행해야 한다. 분쟁을 초래한 국가들은 그들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반면, 지금껏 그들에게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것은 반드시 바뀌어야만 한다.

결의안 1325가 제시하듯, 여성이 중재자, 평화 조절자, 평화 수호자로서 그들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한 노력은 실현되어야만 한다. 여성들을 평화협상의 테이블에 참여시키는 것은 평화협정 타결과 완성도를 높인다는 사실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성들이 성 관련 안건을 발제하고 우선 결정권에 대한 다른 입장을 제시하여 정치적 견해 차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중재하므로 여성의 참여가 평화 협상 과정의 수준을 더욱 높인다.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교육과 훈련에 투자하여 그들이 적극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협력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한 여성들은 화해와 평화유지 과정을 주도할 수 있는 기

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분쟁 예방, 위기 관리, 분쟁 해결, 평화유지 및 인도주의적 재난 관리에서 여성의 동등한 참여는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인류와 개발의 중요성을 배가시킬 것이다. 많은 여성 단체들이 이러한 과제를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들은 국내 및 국제 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개선 사항을 평가할 보다 발전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결의안 1325 실행 간소화가 필요하고 결의안 1325의 취지를 재확인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1889가 최근 주장하듯 적합한 국제 지표를 통한 면밀하게 관찰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결의안 1325는 10년 전의 약속을 이행할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과 기타 유엔회원국은 결의안 1325호의 완전한 이행의무를 다해야하며, 이에 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적절한 법령을 입안하고 시행해야 한다.

■ ■ ■ ■

수 있을 것이다. 오직 이 때 여성과 어린 소녀들은 그들을 무참하게 괴롭혀왔던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날 희망을 갖게 될 것이다. 오직 그때, 세계는 평화유지라는 중요한 과정 전반에 여성을 참여시킬 수 있는 진정한 길을 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UNC** (번역자: 김단영)

전쟁 전술로서의 성폭력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888호: 후속 조치

앤네-마리 고츠(ANNE-MARIE GOETZ)
롭 켄킨스(ROB JENKINS)

앤네-마리 고츠 유엔여성발전기금의 '거버넌스, 평화 및 안보에 관한 수석자문관'
롭 켄킨스 뉴욕시립대학교 인터대학에서 정치학을 가르침, 할프만국제학연구소의 협력국장

2009년 9월 말 매우 대조적인 두 사건이 일어났다. 첫 번째는 9월 30일 미국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성폭력에 관한 결의안 1888호를 제출한 것이었다. 2008년 통과되었던 결의안 1820호에서처럼 이 결의안은 분쟁 시 자행되는 성폭력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성폭력 방지와 가해자 불처벌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들을 유엔에 마련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었다. 그러나 결의안 1888호가 제출되기 불과 이틀 전 아프리카 기니아(Guinea)의 코나크리(Conakry)에서는 선거 일정을 앞당길 것을 촉구하며 한 경기장에서 평화적으로 진행되던 시위가 폭력적으로 진압된 일이 발생했다. 국제조사위원회(Col: International Commission of Inquiry)에서는 이 사건으로 156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다고 밝혔다. 경악스러운 사실은 진압 과정에서 성폭력이 자행됐다는 것이다. 국제조사위원회에서 유출된 자료에 의하면 최소 109명의 여성들이 강간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다수는 경기장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장면을 일부는 휴대폰 카메라에 찍혀 전 세계에 유포되었다. 프랑스 유엔 영사 제라드 아르도(Gérard Araud)는 9월 30일 오전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코나크리에서 일어난 성폭력과 결의안 1888호 간의 연관성에 대해 언급했다.

유엔은 민간인 보호에 있어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고 있다. 전쟁 당사자들이 종종 노골적으로 민간인들을 타겟으로 삼고 있다는 인식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진보적 정책과 무장 단체들의 행동에 있어 가시적인 변화 사이에는 현저한 이행의 격차가 존재한다. 결의안 1820호와 1888호에 내포되어 있는 진보적 조치들이 조속히 이행될 필요가 있다. 기니아에서 발생했던 사건과 콩고민주공화국, 그리고 각 지역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강간사건은 극도로 잔혹한 성폭력이 분쟁과 강압정치의 레파토리 중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분쟁 시 발생하는 성폭력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오랜 동안 불가피한 것, 혹은 전쟁의 부산물 내지 군 지휘관의 통제 밖에서 전투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부수적 피해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다른 민간인 학대와 마찬가지로 분쟁 시의 성폭력은 전혀 필연적인 것이 아니다. 공격을 조직하고 탈선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명령체계라면 강간범들을 처벌할 징계조치를 체계화할 수 있고 미래에 발생할지 모를 강간사건을 방지할 수 있다. 강간 방지에 실패한 것 외에도 지난 세기 발달했던 여러 분쟁 당시, 성폭력이 정치 및 군사 지도자들에 의해 지휘되었다는 증거는 넘쳐난다. 보스니아 수용소에서의 강간이나 르완다에서 특정 민족을 대상으로 한 강간과 같은 경우에 이를 지시한 것은 최고위 정치인들이었다.

성폭력은 분쟁 시에 적의 사기를 무너뜨리는 데, 특히 여성들이 공개적으로 강간당하거나 친족들이 강간에 동참하도록 강요받은 경우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광범위하게 체계적으로 자행되는 성폭력은 분쟁 후의 지속가능한 회복을 저해하는데, 다음의 세 가지 방식으로 재건을 어렵게 한다. 첫째, 가족과 지역사회를 파괴하며 사회적 안정을 뒤흔든다. 둘째, 성폭력의 공포로 여성들의 이동이 제한되어 경제활동 참여가 어렵고 소녀들은 학교에 다니지 못해 집에만 머물게 된다. 마지막으로, 성폭력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게 되면 국가의 시민보호 능력과 법치주의 확립 능력에 대한 믿음을 공고화하려는 노력이 심각하게 저해된다.

결의안 1820호와 1888호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유엔의 노력을 대변한다. 결의안 1820호는 비정부행위자를 포함한 무력분쟁의 당사자들에게



© UNICEF/LeMoine

체계적으로 자행되는 성폭력은 분쟁 후의 지속가능한 회복을 저해하는데, 다음의 세 가지 방식으로 재건을 어렵게 한다. 첫째, 가족과 지역사회를 파괴하며 사회적 안정을 뒤흔든다. 둘째, 성폭력의 공포로 여성들의 이동이 제한되어 경제활동 참여가 어렵고 소녀들은 학교에 다니지 못해 집에만 머물게 된다. 마지막으로 성폭력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게 되면 국가의 시민보호 능력과 법치주의 확립 능력에 대한 믿음을 공고화하려는 노력이 심각하게 저해된다.

결의안 1888호가 시행되면 유엔 시스템은 성폭력 철폐를 위한 수단들을 갖추게 될 것이다. 그리고 1820, 1888호 두 결의안은 성폭력 방지를 위해 평화유지군들을 훈련시키고 직원을 충원하며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1888호 채택 후 며칠 뒤 통과된 결의안 1889호는 사무총장에게 여성 평화유지군의 비율을 증대시키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도록 주문했다.

성폭력을 당한 여성피해자를 위한 병동에서 모기장 안의 간이침대에서 쉬고 있는 여성. 콩고민주공화국 고마에 위치한 'Doctors on Call for Service' 병원의 모습.

countries)에서 불처벌을 방지하며 여성보호 자문위원 임명을 돕기 위해 관련 유엔 평화유지활동들에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 팀을 구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모니터링 및 보고 기제를 제언하고 연례 보고서를 발행하여 반복된 성폭력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의심되는 국가들을 밝히도록 하고 있다.

결의안 1888호가 시행되면 유엔 시스템은 성폭력 철폐를 위한 수단들을 갖추게 될 것이다. 그리고 1820, 1888호 두 결의안은 성폭력 방지를 위해 평화유지군들을 훈련시키고 직원을 충원하며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1888호 채택 후 며칠 뒤 통과된 결의안 1889호는 사무총장에게 여성 평화유지군의 비율을 증대시키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도록 주문했다. 결의안 1888호는 성폭력 기소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1820호와 1888호 모두 사무총장에게 무력분쟁 당사자들과의 대화에 성폭력 문제를 포함시킬 것과 평화 협상 과정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유엔여성발전기금이 종전협정부터 정의, 배상, 부의 분배 및 권력분배에 관한 협정에 이르기까지 1998년 이후 체결된 300여 개의 평화협정을 검토한 결과, 단 18건만이 성폭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보스니아, 시에라리온이나 라이베리아 같이 분쟁 기간 동안 성폭력이 대규모로 자행되었던 경우에서조차 성폭력이 언급되지 않았다. 이는 평화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분쟁 중 성폭력 방지를 위한 유엔행동(UN Action Against Sexual Violence in Conflict)은 2009년 6월 뉴욕에서 평화회담과 성폭력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안 에겔랜드(Jan Egeland) 전 유엔인도지원국 사무차장은 "성폭력 문제가 종전 및 평화구축 과정에서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성들에게는 평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2009년 9월 기니아에서 벌어졌던 대규모 성폭력 사건은 국제적인 중대뉴스였다. 특히 신속히 국제조사위원회가 조직되어 이 끔찍한 범죄에 대해 주의를 불러일으킨 후에는 세계의 여론뿐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보의 수호자들 모두 이 문제를 간과하지 않았다. 평화구축에 대해 다루고 있는 결의안 1889호뿐 아니라 여성과 평화 및 안보에 관한 결의안 1888호, 1820호와 1325호는 회원국과 유엔기관들이 성폭력 문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성폭력이 분쟁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과, 이것의 예방이야말로 평화구축의 필수요소이며 지속가능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여성들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더 이상 의심 여지가 없다. **UNC** (번역자: 강예경)

라니아 앤톤오폴리스(RANIA ANTONOPOULOS)

경제적 혼란의 시기는 언제나 불안정하므로 그 결과 또한 불확실하다. 현재 우리는 큰 위험과 기회에 동시에 직면해 있다. 그 위험이란, '회복'의 노력들이 국가 간은 물론 국내에 산재해 있는 불평등을 심화시키면서 권력을 가진 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때 우리는 기존의 격차가 더욱 벌어져서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반향을 일으키며 사회적 소외를 가져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기회라는 것은 정치적 리더십과 대담한 정책으로 국가 간 및 성별에 따른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금융 위기는 가난한 사람들, 특히 가난한 여성들에게 참으로 가혹했다. 그들을 보호해줄 사회적 장치는 적은 반면, 이러한 혼란은 기후변화, 식량과 깨끗한 물의 부족,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의 부족, 실업, 이주, 빈약한 급여의 불안정한 비정규직 증가와 같은 많은 다른 재난들과 함께 온다. 세계은행(World Bank)과 유엔개발계획(UNDP), 국제노동기구(ILO)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의 경제적 위기는 지난 2년간 3억 명 이상의 사람들을 하루에 1달러로 생활하는 극빈으로 내몰며 지난 10년간 이루어놓았던 빈곤 감소와 양성평등의 성과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라니아 앤톤오폴리스 뉴욕바드대학교 레비경제연구소의 '양성평등과 경제' 프로그램 책임자

이 위기가 부각시킨 이슈들 중 하나는 바로 금융 시장의 세계화, 자유화와 불간섭 주의적 접근 방식이 반드시 시장 효율성을 증진시키거나 바람직한 사회, 경제적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아직 경제 위기가 산적해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적절한 시간 내에 경제시장은 스스로 조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이대로 방치된다면 본질적으로 내재해있는 불안정한 영향력이 경제 재앙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최근의 역사가 아주 역력하게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불안정한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사실상 세계 여러 정부들의 책임이 되었다.

사회 정책 구축

어떤 형식의 사회 계약들이 등장할 것인가 하는 것은 확실하지 않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케인즈적 합의(Keynesian Consensus)'의 등장을 목격했다. 대공황의 경험을 토대로, 케인즈 주의를 경제를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화폐와 재정 정책을 사용하고, 노동과 민간부문은 물론 정부와 국민 사이에도 권리와 의무를 정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들의 복지를 고려하고 시민들 간의 격차와 이익의 갈등을 인지하여 정부는 재분배 정책을 통하여 불평등을 조정하고 줄이는 책임을 가지게 되었다. 평화와 사회 통합을 가져올 그 협정은 노후연금, 보편적 무료 교육, 기초적 생활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보장 시스템을 포함한다.

그리고 워싱턴 합의(Washington Consensus)의 시대가 왔다. 이것은 나라의 경제와 국민을 위해서는 정부 크기와 역할을 보다 줄이는 것이 좋다고 제안하는 자유방임주의 사상이다(laissez-faire ideology). 선진국의 공공 서비스 투자 감소와 생산, 무역, 금융 제재 완화는 개발

도상국들의 공공 자산 매각과 정부의 역할 축소를 포함하는 구조적 조정 정책을 동반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난 수십 년 동안 유지되던 자유 시장체제가 자본주의 관리체제로 대체됨에 따라, 국내 제정 법과 국제기구 합의 형태의 금융 분야의 특혜가 금융자금관리자 자본주의를 이끌어내게 되었다. 지난 20년간 몇몇 주목할 만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산업정책과 전략적 개발 결정들은 사라졌고, 그러는 동안 취약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비주류 사람들의 수는 증가하고 소득 격차가 벌어졌다는 것은 더욱 명백한 사실이 되었다. 대부분의 경우 사회적 보호는 이러한 급격한 변화의 급류에 편승한 아들과 이러한 변화에 뒤처져 허덕이는 사람들 간의 확연한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실용적인 방안이 되었다.

의미적 차이가 아닌

두 가지 개별 시스템

사회적 보호는 현금 지급과 같은 가장 보편적 지원체제의 형태로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계 보장을 목표로 하는 정책 조정을 의미하게 되었다. 자기 자신을 부양하기 힘든 사회적 약자에게 현금 지급을 통하여 그들의 최소 생계권을 부분적으로나마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 차이가 아주 미묘할 수는 있겠지만, 정부의 사회보장 지원 혜택은 현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 체제로 대체되어 왔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의미론적인 차이가 아니다. 개발도상국가의 사회 보호 및 사회 개발이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향상되는지 생계수단의 다각화에 의해 촉진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다. 사회보장은 공공서비스 및 경제 시장 체제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반면, 사회복지는 가난한 고아 어

린아들을 돌보는 노령의 조부모들과 같이 각별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합하다는 의견이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저임금의 불안정한 비정규직 고용시장에만 의지해야 하는 어중간한 위치에 속하는 그룹이 있다. 그들은 땅을 소유하지 못하거나 혹은 극히 미미한 생산력의 소규모 땅을 소유하고 있다. 만성적 빈곤의 상황 속에서 그들은 최소한의 생계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현금지급 형태의 사회 보호 정책이 적합하다.

이와 반대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현금 지급은 실업 급여, 노인 및 장애인 혜택에는 그 취지가 부합하지만 중간 그룹의 사람들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대신 현금 지급은 생계 수단 다양화를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예로 씨앗과 비료를 위한 보조금, 생산성을 증진과 식량권(right to food) 확보를 위한 지역 보관 시설 및 농촌지도사업 설립, 경기 침체 또는 농촌 지역 실업 문제 악화 시 일자리

자유방임적 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워싱턴 컨센서스는 정부의 규모와 역할 축소를 제안했다. 선진국에서 생산, 무역, 금융 부문의 규제 철폐와 공공 서비스 예산 감축은 개발도상국에서의 공공 자산 매각과 정부 역할 축소를 의무화하는 구조조정 정책들과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었다.

창출, 공공 일자리 창출 및 일할 권리 보장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현금 지급은 사회적 약자들이 소비자로서 시장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하고 또 필수적이다.

대공황과 워싱턴 합의 이후의 시기에 어떠한 사회 정책 시스템이 등장할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시기에 각 국가의 선택은 그들의 재정 여력과 사회보장을 정책에 통합시키는 그들의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경제 위기 이전의 세계 경제 위치에 따라 각 국가들은 지금 성장, 고용, 식량안보와 재정 정책 측면에서 다양한 압력을 받고 있다. 국제 자금대출 기구와 공여국들은 종종 그들의 정책을 강요해왔고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관행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경제적 압력에 더하여 몇몇의 국가들은 그들의 인적자원 개발과 사회, 경제적 안정

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선진국과 몇몇의 신흥 경제국들은 여유가 있는 반면,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정부와 경상 수지 적자라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정책과 재정 여력은 줄어들었다. 세계 경제 침체기에는 이러한 타격을 받는 모든 개발도상국들과 후진국들을 위해 경기 부흥 정책과 순환 정책을 시행했어야 했고, 정부가 사회보장 분야 재정을 늘리려고 할 때 오히려 그들은 경기조정 정책을 줄여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실제로 아주 불공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선진국과 일부 신흥 경제국들은 협력하여 많은 양의 유동성 자금을 빠르게 유입하여 파산하도록 놔두기에는 너무 커져버린 사기업들을 구제하였다. 그러나 모든 나라들은 적은 수요와 실업률 증가 추세를 역전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반 순환적인 경제정책을 도입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저개발 국가들에게 유리한 조건의 특수 자금 대출 장치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최근의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과 세계은행의 보고서에는 지난 위기와 구조적 조정 정책들로부터 터득한 교훈이 잘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신중하게' 마련된 거시경제학적 정책들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제기되는 질문은 개발도상국들이 남성과 여성들에게 동일한 비율의 사회보장을 위한 적절한 예산 할당을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라는 것이다.

이 점은 특히 이 경제 위기의 타격에 직면해있는 취약한 국가들의 증가하는 대출 수요로 인해 사회 투자부문 예산 감축과 공공 자산 매각을 유도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된다. 비록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반 순환적인 경



제정책들은 주로 금융 분야와 '무너질 위기가 적은' 대기업들에게 또다시 우선적인 특혜를 주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실업 해소를 위해 마련된 정책들은 오히려 그 혜택이 안정된 정규 직장을 가진 사람들에게 돌아갔다. 가난하고 비정규적인 근로 조건 속에서 근무하거나 혹은 취업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나? 이제 정책 결정 토론을 시작하기 위하여 생각들을 새롭게 정리할 시간이 되었다. 중단기적 안정과 성장이라는 목표 아래 불평등과 빈곤을 악화시키는 정책들을 반복하는 것은 척결되어야만 한다. 새천년개발목표의 기한 내 달성을 위해 더욱 더 많은 노력을

투자하고 있는 2005년 글레이글스 정상 회의에 가맹하는 것과 부채 상환을 연기하는 지불 유예는 많은 국가들에게 위기를 경감시키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그 실현이 더욱 시급함을 요한다.

위기에 대한 정책 대응

현재의 위기에 비록 여성과 남성이 함께 영향을 받을지라도 그 방식은 틀리며 또한 그러한 영향은 지리적 위치, 사회 경제적 지위 및 이들의 생계 수단에 따라 틀리다. 정책 실행의 영향이 여성들 사이는 물론 여성과 남성 간에 다르게 나타난다는 인식의 중요성이 유엔개발계획(UNDP) 성평등 팀의 요청으로 본인이 작

성한 최근의 보고서를 포함하여 최근 몇 달 동안 일부 전문가들의 참여로 자세히 소개되었다. 이 위기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장기 실업이다. 지난 역사를 참고한다면 지금의 경제 회복 속도는 국내총생산 성장률에 한참 뒤쳐져 있다. 실업이 향후 몇 년간 지속될 것이며, 이는 끔찍했던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 상황을 상기시킨다. 만약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실업으로 인해 불안정과 취약성을 증가시키게 되면, 정부는 직업의 다양화를 강화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을 병행하는 정책 조정을 실행하게 된다.

정책에 여성들의 필요가 충분히 반영된다면, 그 사회보장 정책은 유엔 새천

년개발목표 달성에 공헌하는 동시에 급여 채불의 부담을 줄이고 남성과 여성의 동일한 임금 지급을 촉진시키는 빈곤감소 지향적, 개발 지향적, 성평등 지향적 정책이 될 수 있다.

최후의 보루,

대부업자부터 최후 고용자까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금 위기의 의도하지 않았던 반가운 결과 중 하나는 새롭게 재확인된 국가의 필수적인 역할이다. 세계적으로 이제는 도덕적 해이나 그러한 지출에 따른 적자 위험에 대한 고려 없이 정부가 금융 분야 최후의 대부업자, 사기업과 은행에 재투자하는 투자자가 되었다. 이와 같은 과감한 행동이 다른 영역에서도 필요하다. 국가는 일자리 제공에 실패한 시장에서 최후의 고용자 역할을 해야 한다. 심각한 실업 위기

**새천년개발목표의
기한 내 달성을 위해
더욱 더 많은 노력을
투자하고 있는 2005년
글레이글스 정상회의에
가맹하는 것과
부채 상환을 연기하는
지불 유예는 많은
국가들에게 위기를
경감시키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그 실현이 더욱
시급함을 요한다.**

에 직면하여 공공 일자리를 통한 직접적인 고용 창출은 핵심 정책 도구로써 부상하고 있다.

경제적 위기의 시기에 정부가 고용을 책임지고 최후의 고용인 역할을 한 것은 매우 긴 역사를 갖고 있다. 수년 동안 많은 나라들은 고용 보장제도, 공공 서비스 고용 정책, 노동을 위한 식량 공급, 공공 근로 정책, 최후의 고용 프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정책을 실행해왔다. 이중 인도의 정책이 특별한 사례로 두드러진다. 이 분야에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여 2005년 인도는 '마하트마 간디 전국 농촌고용 보장 법안(Mahatma Gandhi National Rural Employment Guarantee Act, NREGA)'을 표결하였다. 게다가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칠레, 에티오피아, 남아프리카와 같은 많은 나라들이 지금의 경제위기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이 정책 도구를 활용해오고 있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공학적인 시각으로 공공사업 확립에 있어 노동력 활용을 극대화하는 고용 집약적 인프라 프로그램 개발 영역에 20년 동안 투자해왔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여성에게도 혜택 주기

실업이 경제적, 사회적, 심리학적 비용을 초래하는 관계로, 경제적 측면에서 고용 보장 프로그램은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조난에 따른 이주, 민족적 적대감, 위험한 사상에 대한 민감성, 반민주적 정치적 운동은 경제적 궁핍과 연결되어 있다는 주장 또한 설득력 있게 제기되어 왔다. 완전 고용에 대한 주장은 실제로 경제 위기와 번영의 시기 똑같이 일할 권리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권리는 세계인권선언을 포함하여 다수의 유엔 문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고용은 주로 남성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문서화되어 있다.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80~90%

의 건설작을 남성이 차지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미국과 대한민국의 환경 프로그램과 녹색 성장 관련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남성 중심의 건설 일자리들이다. 양성평등 인지적 관점에서 두 가지 핵심 이슈가 부각된다.

첫 번째는 새롭게 만들어진 모든 일자리는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심각한 경제 위기 기간 중에는 실현 가능성이 적어보이지만 적합한 직업 훈련을 포함하거나 혹은 남성 중심적 고용형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여성을 위한 고용 경제를 포함하는 고용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한다. 더욱이 고용 창출 제한을 해결하고 무급 노동 규정을 바로잡기 위하여 탁아 시설 운영이 자리 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육과 고용이라는 상황을 놓고 여성들은 힘겹고 불공정한 선택을 해야 한다. 이것은 실제로 인도 NREGA의 일부이기도 하다.

두 번째로 물질적인 사회 기반 시설, 농촌 개발, 사회적 영역의 특정 일자리 창출을 통해 무급 노동의 부담을 줄여 여성

**현 경제 위기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반가운 결과들 중 하나는
시장이 고용에 실패할
경우 최후의 고용자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국가의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새롭게
확인했다는 점이다.
공공사업을 통한 직접
고용 창출이 핵심적인 정책
도구로 떠오르고 있다.**

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 남성과 여성을 포함한 근로자들은 깨끗한 물의 쉽고 빠른 확보, 보다 나은 위생, 지선 도로, 작은 다리, 향상된 관개시설, 번기를 얻을 수 있도록 공공자산 및 공동체 건물을 설립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특히 HIV/AIDS 환자를 가족 구성원으로 둔 가정에 영유아 발달과 환자를 위한 홈케어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과 소녀들의 삶의 경험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성 평등을 고려하여 기획된 공익사업의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다. NREGA는 근무지가 여성의 거주지에서부터 특정한 거리 안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1년의 금융 위기 이후 아르헨티나의 Jefes y Jefeas de Hogar는 대부분 지역 사회의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보통 해당 프로그램 수혜자들의 요구에 의해 직접 고안되었다. 공익사업 확장 프로그램의 일부인 남아프리카의 사회영역 프로젝트는 또 다른 예를 보여준다. 성 평등적 관점에서 고안된 공공사업은 효율적인 관점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다. 남아프리카의 고용 창출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와 인도의 NREGA는 사회 기반 시설과 사회 서비스분야의 고용, 소득, 빈곤감소 성장 영향은 실제로 사회간접 설비에 미치는 영향보다 훨씬 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들은 다른 개발도상국들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되었다.

실업 해결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는 취업을 준비하며 취업 의지가 있지만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남성과 여성의 고용 혜택을 고려해야만 한다. 이러한 사례는 무수히 많으므로 이 위기에 적절한 대응 마련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희망적인 것은 적어도 이 문제가 진지하게 고려될 것이라는 점이다. **unc**

(번역자 : 한재율)



미디어, 그 속에 여성은 없다

VOLUME XLVII

THE MASS MEDIA

리자 그로스(LIZA GROSS)

18세기 아일랜드 철학자 조지 버클리 자신의 유물론을 '지각되는 것만이 존재한다'는 명제로 요약하였다. 버클리가 이같은 통찰을 얻었을 때, 주교였던 그에게 젠더문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철학적 직관력은 미디어 보도와 관련하여 전 세계의 여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적절하게 묘사할 수 있게 했다. 여성들은 뉴스에서 배제되

어에 등장하는 예는 드물다. 흑인들의 이야기가 미디어에서 다뤄질 때에도 판에 박힌 모습으로 그려질 뿐이다.

몇 년 전 장기간 여러 나라에서 미디어 교육을 진행한 적이 있었다. 동료 강사와 나는 워크숍 전에 항상 지역 신문들의 내용을 신속히 검토하곤 했다. 신문을 읽으며 여성들의 이야기가 담긴 사진이 나올 때까지 페이지 수를 세어 보

았다. 편집자들은 보통 가장 중요하고 알차다고 생각하는 기사들을 첫 지면에 배치한다. 이 면을 훑어보면 여성들의 모습을 하 나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권력과 통제력을 암시하며 마이크

자들은 어디에 있던 것일까? 과학, 경제, 스포츠면에서도 권위 있는 여성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여자 의사도, 환자도 등장하지 않았던 여성과 유방암 기사를 떠올리면 아직도 놀라울 따름이다.

이후로 상황은 조금 나아졌지만 아직도 여성은 미디어에서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 여성과 농업 취재교육 준비의 일환으로 국제여성언론재단이 2009년 2월에 발표했던 아프리카 미디어에서 여성은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 취재원의 11%만이 여성이었고, 여성이 지역 식량 70%를 생산하고 있음에도 여성이 중심으로 등장하였던 농업 관련 기사는 7%에 불과했다. 농업기사의 핵심인 여성이 빠져 있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독자들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길 기대하는가.

그뿐이 아니다. 최근 한 프랑스어 신문에서 여성 기업인

에 관한 기사를 읽었을 때는 고무되었지만, 곧바로 키가 작은 여성은 남편감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기사를 발견했을 때는 낙담할 수밖에 없었다.

방송 미디어계에서는 겉모습이 중시된다. 영향력 있는 여성인사의 옷과 화장, 그리고 헤어스타일이 철저히 분석되어 그들의 견해와 지위만큼 주목을 받는다. 어떤 기사도 동등한 남성 정치인의 구겨진 양복과 어울리지 않는 셔츠, 넥타이에 대해 언급하길 주저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하고 매일 학대받는 여성이나 인신매매를 당해 노예와 다를 바 없이 살고 있는 수만 명의 여성들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보도국장들은 이같은 비참한 범죄들을 투자로 연결될 만한 매력적인 뉴스거리로 인식하지 않는다. 세계 언론에서 여성들이 왜곡되어 그려지는 것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여러

**여자 의사도, 환자도
등장하지 않았던
여성과 유방암 기사를
떠올리면 아직도
놀라울 따름이다.**

었고 미디어에 등장하지 않았기에 존재감이 희박했으며 사회에 대한 공헌 역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상황의 차이는 있지만 여성과 여아들이 경험의 화자나 특정 주제의 권위자로 미디

나 책상 뒤에 있는 남성들의 사진은 매우 많이 등장했지만 여성은 없었다. 텔레비전은 정도가 더욱 심했다. 젊음과 미모가 카메라 앞에 설 수 있는 전제 조건이었다.

성숙하고 노련한 여성 기

리자 그로스 워싱턴 D.C.에 소재해있는 국제여성미디어재단의 전무대리

방송 미디어계에서는
겉모습이 중시된다.
영향력 있는 여성인사의
옷과 화장, 그리고
헤어스타일이 철저하게
분석되어 그들의 견해와
지위만큼 주목을
받는다. 어떤 기자도
뚱뚱한 남성 정치인의
구겨진 양복과 어울리지
않는 셔츠, 넥타이에
대해 언급하길 주저하지
않는다.

가지 요인들, 특히 보도국의 본
질적 특성과 전 세계적 미디어
의 보도행태가 직접적으로 영
향을 미친다.

기자들은 항상 시간에 쫓
겨 기사를 쓴다. 매일 계속되는
기사송고의 압박 탓에 뉴스소
재를 다양화하거나 기사화, 혹
은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시
간을 투자해가며 새로운 목소
리를 찾아다닐 틈이 없다. 이런
이유로 동일한 주제를 소재로
하여 기사를 쓰게 되는 경우가
 많다. 신진 여성 기업인에 관한
내용은 늘 인터뷰를 해오던 남
성 은행가와 비교해봤을 때 선

호할만한 뉴스거리가 아
닌 것이다.

기사들은 자극적이
고 선정적으로 흐른다.
점차 분화되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미디어 환경
에서는, 중요하지만 재미
없는 주제, 예컨대 썩어
가는 하수시설에 대해
논의하는 것보다 아찔하
게 웃을 입은 젊은 여성
의 이야기가 독자의 이
목을 끌기 훨씬 쉬운 법
이다.

결국, 예측 불가능한 바쁜
일정과 시간의 제약이라는 특
성 때문에 미디어는 가정의 주
요 관리자이자 양육자인 여성
들에게 그다지 공평하지 못하
다.

뉴미디어가 소비자의 뉴스
와 기타 정보들을 처리하는 방
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일
으켰을지는 모르지만 아직은
기술적인 발전이 직업의 불평
등이나 보도의 불평등을 마법
처럼 해소할 것이라는 증거가
나와 있지 않다.

언론기능의 근본적인 한계
는 보도국이 사회를 반영한다

는 사실에 있다. 미디어 산업
에서도 여성 앞에는 유리천장
이 버티고 있다. 텔레비전, 신
문, 라디오, 인터넷을 막론하고
모든 형태의 미디어 종사자들
사이에는 이러한 불평등이 자
리하고 있고, 이는 사회 전체에
만연해 있는 양성불평등의 연
속선상에 존재한다. 여성들은
아직도 여러 직업 분야에서 차
별을 받고 있는데 미디어계 또
한 예외는 아니다.

긴 소매 셔츠를 입은 남자
들의 무리, 그 입술에 매달려
있는 담배, 몽당연필로 편집 중
인 다량의 원고들 혹은 맹렬히
로열 타자기를 타이핑하고 있
는 모습이 포착된 넓은 보도국
흑백사진을 보면, 이러한 현실
의 단면을 잘 발견할 수 있다.
만약 거기에 여성이 있었다면
분명히 커피를 나르거나 전화
를 받고 있었을 것이다.

의식 속에 뿌리 깊이 자
리 잡은 권위주의 탓에 남성들
은 양성평등 문제에 대해 관심
을 가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여
성의 리더십을 중시하는 조직
이나 여성들을 격려하고 여성
의 견해를 고취하고자 애쓰는

남성 중역들이 없다는 이야기
가 아니다. 그러나 대체로 미디
어 산업은 여전히 시대착오적
인 틀, 남성 지배적 문화 속에
감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많은
여성 기자들은 양성평등이 아
직도 요원하다고 느끼고 좌절
한다. 이런 상황은 뉴스 보도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뉴
스에서 젠더이슈를 의제화하는
여성들이 많지 않다.

소수 여성들만이 고위직으
로 진출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은 남성 동료보다 더 남성적으
로 조직생활을 한다. 그녀들은
양성평등을 희생한 대가로 성
공을 얻는다. 나의 동료 중 한
명은 미국 신문 산업의 걸출한
인물이다. 그녀는 골프를 그다
지 좋아하지는 않지만 골프가
중요한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남성
동료와 함께 필드에 나간다. 그
녀는 골프 치는 시간을 여가가
아닌 업무의 연장으로 여긴다.
자신의 행동에서 배어 나오듯,
적극적인 옹호를 펼치든 젠더
문제가 불거져 처하게 되는 곤
란을 감수할 수는 없었다.

관리직 여성들이 점차 중

가하고 있지만 미디어계 전반
에 퍼져 있는 편견은 여전하다.
업계의 남성 중심적 네트워크
구조는 여성의 활발한 참여를
어렵게 한다. 여성이 강하게 의
견을 피력하면 감정적이고 성
가시다고 생각한다. 반면 의견
을 내어놓지 않으면 능력이 없
다고들 여긴다. 큰 신문사의 중
역 편집인인 남성 상사가 자신
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여성
중역을 비꼬며 흉내 내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자신이 얼마나 심
하게 그녀의 의견을 무시했는
지를 동료들에게 보여주지 위
해서였다. 얼마나 어리석던, 의
견차가 적든 큰 나쁜 그가 남
성 직원들을 놀리는 것을 본 적
이 없다.

보다 공정한 사회를 이룩
하기 위해서는 남녀 간에 존재
하는 지위(status)불균형을 이
해해야 한다. 미디어는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는 거울이 되어

야만 한다. 그러나 지
금까지는 여성에 대
한 포괄적이고 공정
한 묘사가 비참하리
만치 부족했다.

국제여성미디어
재단은 여성의 목소
리를 공정하고 의미
있게 뉴스에 담아내기
위한 첫 번째 노력으
로서 전 세계 미디어
계에서 여성들이 차지
하고 있는 위치에 대
한 조사를 유례없이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있다.

전 세계 500여 개 미디어
그룹의 중역들은 보수의 평등,
승진기회 및 여성기자들에 대
한 지속적 직무훈련 등의 이슈
들에 대해 인터뷰를 했다. 연
구결과를 통해 현재 보도국에
존재하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요직에 진출해있
는 여성들에 관한 이야기뿐 아
니라 그 어떤 기사라도 잠재적
인 젠더기사가 될 수 있다는 것
을 이해하는 능력 있는 여성들
은 보도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
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이야기는 들어줄 대상이
있어야만 의미를 가진다. 미디
어 산업에서 올바른 구조가 자
리 잡게 된다면 보이지 않는 이
여성들은 목소리를 낼 수 있
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
다. **unc** (번역자: 윤아름)

요직에 진출해있는
여성들에 관한
이야기뿐 아니라
그 어떤 기사라도
잠재적인
젠더기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능력 있는
여성들은 보도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예측 불가능한
바쁜 일정과 시간의
제약이라는 특성
때문에 미디어는
가정의 주요
관리자이자 양육자인
여성들에게 그다지
공평하지 못하다.



번역자: 이윤성



저녁식사를 한 후 그녀는 매주 한 번 강의하는 수업을 위해 집을 나섰다...



정치와 여성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투쟁

테오 벤 구리랍(THEO-BEN GURIRAB), 피아 카예타노(PIA CAYETANO)

여러 전문영역에서 여성들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정치분야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사실 전세계적으로 여성들은 정부에서의 정책 및 의사 결정과정에 활발히 참여하지 못했다. 1975년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되었던 제1차 유엔 세계여성회의에서 국제사회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많은 국가에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문제라는 사실을 상기하게 되었다. 각국 정부가 여성참여 증진 전략 개발을 요청 받았지만 정치적 참여는 우선하여 다뤄져야 할 이슈가 아니었다. 이후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과 여성참여가 의사결정 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해온 반면, 이러한 관심이 즉각적인 결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1975년 당시 전 세계적으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0.9%였으나 10년 후에는 11.9%를 기록, 단 1% 증가에 그쳤을 뿐이다.

1985년 나이로비에서 열렸던 유엔의 여성을 위한 10주년: 평등, 개발과 평화의 성과 검토 및 평가를 위한 세계회의(the World Conference to Review and Appraise the Achievements of the United Nations Decade for Women: Equality, Development and Peace)에 이르러서야 각국 정부와 국회는 모든 정치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증진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러한 계획은 10년 후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된 북경행동강령(Beijing Plan of Action)에서 보다 강화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특별 주의해야 하는 여성발전의 저해요소로 분류되었다.

테오 벤 구리랍 국제의원연맹 회장, 나미비아(NAMIBIA)공화국 국회 대변인이자 전 총리
피아 카예타노 필리핀 상원의원, 국제의원연맹 여성 국회의원 조정위원회 위원장

북경행동강령 이후 국회에서의 여성참여와 정치적 결정과정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 관심이 매우 고조되었다. 여성 국회의원에 관한 연구와 자료수집을 수행해온 국제의원연맹(IPU: Inter-Parliamentary Union)은 유엔이 여성의 완전한 정치참여를 위해 추진하는 여러 계획들을 지원했다.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지만, 국제의원연맹의 노력은 1992년에 발표한 성명서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 "정책과 법률 결정에서 양성의 이익과 특성이 동등하게 고려되고, 동등한 참여가 수반될 때에야 비로소 민주주의는 진정하고 역동적인 의미를 지니게 된다."

정책과 법률 결정에서 양성의 이익과 특성이 동등하게 고려되고, 동등한 참여가 수반될 때에야 비로소 민주주의는 진정하고 역동적인 의미를 지니게 된다.

1997년 9월 국제의원연맹은 민주주의에 관한 세계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Democracy)을 채택했다. 이 선언은 진정한 파트너십이란 양성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들로 인해 풍요로워지며,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일하고 서로 보완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민주주의는 이러한 파트너십을 전제조건으로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 정신은 양성 파트너십이 모든 활동의 중심에 있도록 연맹의 사업 속에 녹아있다.

이런 점에서 국제의원연맹이 양성평등과 양성 파트너십을 위해 다음 두 가지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여성의 정치적 결정과정 참여증진을 포함, 남성과 여성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국가가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를 위한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두 활동은 연관되어 있으며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 지금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 최악의 여성차별이고 평등에 대한 모독이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여성의 기본적 인권을 부정하는 것은 여성과 남성 모두와 관련된 문제이다. 따라서 위의 노력은 의회 민주주의의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필요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여성과 남성 모두의 정치적 리더십을 포함하고 있다.

전 세계가 여성의 더욱 폭넓은 정치참여에 대한 필요성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얻어진 결과는 고무적이다.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현재 여성들은 국회의석의 18.6%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1995년 이후 60% 증가한 수치이다. 반면 여성의원 수가 10%에도 못 미치는 나라도 아직 25%에 달한다. 상황은 나아지고 있으나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모든 나라에서 진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여성의 역할에 대한 편견과 문화적 인식, 재정적 자원의 부족과 제도적 불감증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저해한다. 민주주의가 양성평등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을 어떻게 더 두고 볼 수 있단 말인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이 자명하다.

우리는 여성의 정치참여가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여성들은 남성과는 다른 정치에 대한 시각과 재능,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이는 정치의제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국회 운영방식의 변화는 여성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회에서의 언어와 행동의 변화, 차별화된 이슈와 정책 선정, 예산을 포함, 행정의 모든 면에서 성 인식성 향상, 새로운 법안 도입과 현행법의 변화 등이 그것이다.

여성들이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면서 전 세계 여성들의 권리에는 중요한 정치적 가시성이 부여된다. 단일집단은

단일집단은 아니지만 여성들은 다른 여성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고 여성문제를 국회에서 의제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 관심사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

아니지만 여성들은 다른 여성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고 여성문제를 국회에서 의제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 관심사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 여성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지만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근절하는 데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르완다 | 점차 더 많은 여성들이 국회에 진출하고 보다 큰 책임감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고 있다. 가장 주목할만한 사례가 르완다이다. 2003년에는 하원의석 중 48.8%를 여성들이 차지하였는데, 이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치, 임계치인 1/3을 상회하는 수치이다. 현재 르완다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56%에 이른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르완다에서의 이러한 성공은 여성 국회의원의 수적 증가뿐만이 아니라 활동가 국회의원 협의체와 고도로 발달된 협의적 정책결정 모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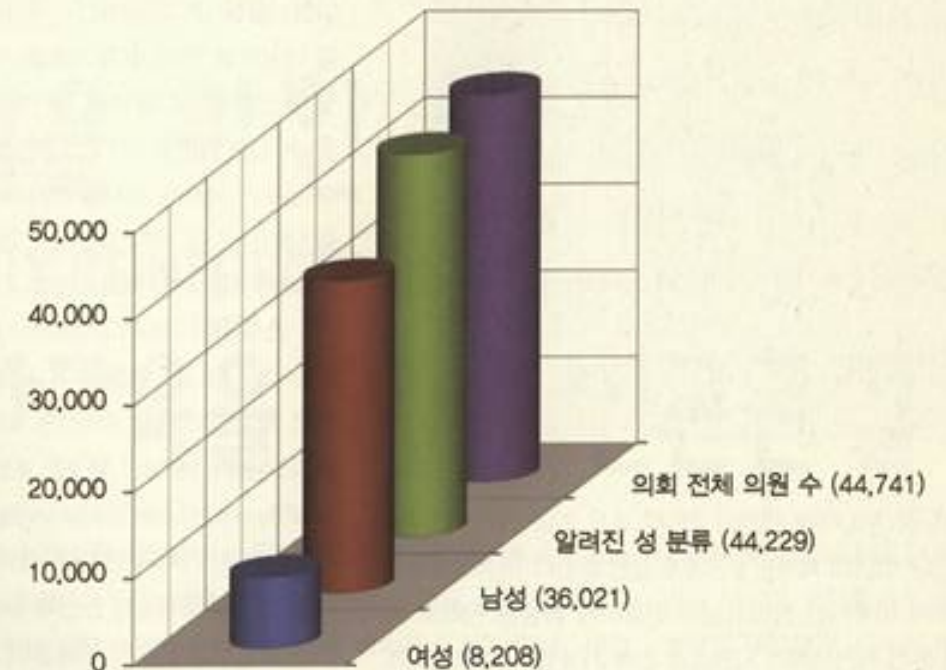
초당적 정치 협의체인 르완다 여성의원 포럼(Rwanda Women Parliamentarians Forum)은 르완다의 여성관련 의제들을 조정한다. 2003년 이후 이 포럼은 성인지적 법률을 발의하고 정부의 젠더에 기반을 둔 감독을 향상하며 국회 내에서의 양성평등을 증진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 지금까지 거둔 가장 중요한 업적은 2006년 성폭력 철폐 법안의 도입이다. 이것은 르완

34쪽으로 이어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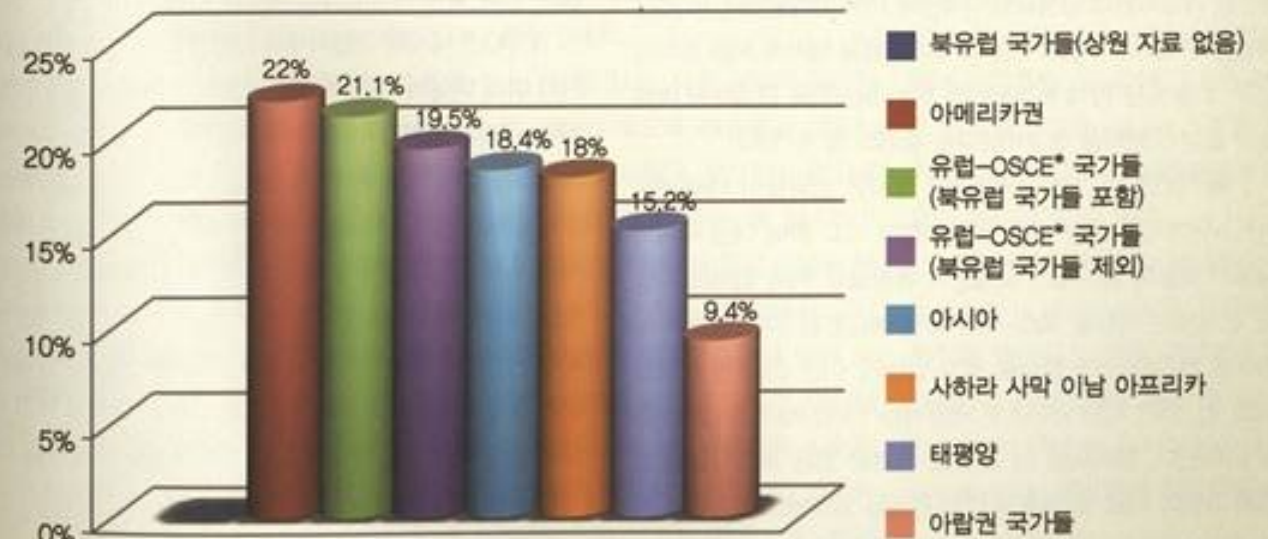
국가 의회 내의 여성들

2009년 11월부터 상원 및 하원 합산

전 세계 평균



지역별 평균



*유럽안보협력기구
출처: 국제의원연맹

주목해야 할 것은 르완다에서의 이러한 성공은 여성 국회의원의 수적 증가뿐만이 아니라 활동가 여성의원 협의체와 고도로 발달된 협의적 정책결정 모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다 최초로 강간에 대해 정의한 법안으로서 기념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법안의 채택은 2년여에 걸친 르완다 여성의원들의 리더십 하에 이루어진 참여과정과 신중하게 형성된 전략적 동맹관계를 통한 시민사회의 지원으로 인해 가능했다. 마찬가지로 르완다 여성의원 포럼이 남성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도모했던 것 역시 중요하다. 포럼은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서 남성들을 참여시켰고 여성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였다. 그 결과 채택 당시 법안은 여성의원과 남성의원 각 4명에 의해 발의되었다. 이 법은 여성들이 국회에서 영향력을 가지지 못했을 당시에 처음 논의되었고 그 후 10년 만에 통과되었다. 이는 여성폭력 근절에서 여성들의 참여가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

파키스탄 |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성과들이 나타난다. 파키스탄에서는 초대 여성 국회 의장의 지도 하에 여성 국회의원들의 초당적 협의체가 결성되어 여성들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협의체는 여성들, 특히 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전화 한 통화로 의료, 법, 안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핫라인제도 도입에서도 잘 나타난다. 협의체는 산, 등유로 화상을 입은 피해자들의 고통과 그들의 치료 및 재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을 뿐 아니라 소외된 저개발 지역 화상센터 건립에 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소외 당하고 사회에서 배제된 여성 생존자

들의 역량강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스페인 | 스페인에서는 여성의 의사결정 및 국회참여 비율이 30%를 넘는다. 이로 인해 여성폭력에 대한 포괄적인 법적 접근뿐 아니라 정부의 감독 및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2008년 국회는 평등위원회 하에 소위원회를 두어 2004년에 채택된 성폭력에 대한 통합적 보호조치에 관한 기본법(Organic Act on Integrated Protection Measures against Gender Violence)의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하였다. 소위원회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양적, 질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률가, 학자, 행정가, 언론, 법 집행부를 포함한 다양한 인사들과 심리를 개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또한 법의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정부가 새로운 조치를 취하거나 법률을 개선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소위원회의 첫 번째 결정은 2009년 11월 25일 발표되었다.

스웨덴 | 어느 나라에서나 여성의원들만 변화를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에서는 남성의원들이 태도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오피니언 리더(opinion leader)로서의 지위를 이용한다. 2004년 결성된 초당그룹인 스웨덴 남성의원 네트워크(Swedish Male Parliamentarian Network)는 남성의원들이 자신이 가진 가치와 편견, 인간의 평등에 대해 토론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네트워크는 인신매매와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남성들이 국회 내에서, 지역적 차원에서 그리고 타 기관과의 협력 가운데서 대화에 참여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시민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가치와 태도,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경찰, 변호사, 판사, 군대, 스포츠 감독, 학교 및 무역노동조합의 회의를 기획하기도 한다.

2010년 세계가 유엔사무총장이 주도하는 UNITE 캠페인의 기치 아래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세계의 국회가 이제 막 양성의 이익과 특성을 대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에 대해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초점이 법에 있든, 정부의 감독에 있든,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든, 여성들이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서 참여하게 되면 우리 모두와 민주주의의 제도는 강화된다. 그렇다면 이제 상상해보라. 우리를 대변하는 국회가 진정으로 평등의 파트너십을 반영하여 여성과 남성의 목소리가 동등하게 존중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끊어내기 위해 양성 모두가 힘을 합치게 된다면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지. **unc** (번역자 : 박수연)

여아에 대한 교육이 빈곤타파의 전제조건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교육은 여성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여성들을 변화시킨다. 교육은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것을 저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게 했던 전통적인 배제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게 한다. 특히 고등교육은 여성들이 정부, 비즈니스, 시민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 여성들은 이성적인 리더가 될 수 있다. 많은 연구들이 여성

빈곤근절을 위한 여아교육,

A MUTUALLY REINFORCING GOAL

훈영구(HOON ENG KHOO)

여아교육을 위한 빈곤근절

이 남성보다 더 현명하게 자원분배를 하는 편이라고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여성은 수입의 상당 부분을 식품과 자녀교육에 사용한다. 따라서 여성의 경제적, 정치적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다음세대에 직접적인 이득이 된다. 여성들에게 우수한 대학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은 그들과 자녀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회가 개방되면서 여성들에게도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가 많아졌지만 이런 역할을 수행할 훈련된 여성들이 없다면 그런 기회는 사라지고 만다. 예를 들면 아프가니스탄의 변화는 여성의 정부와 사회진출 가능성을 높여주었지만 이러한 가능성은 적합한 능력을 갖춘 여성들 없이는 무의미하다. 긍정적인 사례로는 르

완다를 들 수 있다. 정부에서 일하는 많은 여성은 1994년 집단학살 이후 르완다를 평화롭고 효율적으로 재건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리더십이 변화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리더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능력은 여성의 권리와 미래전망에 영향을 미친다.

능력 있고, 시려 깊으며 윤리적인 리더가 되도록 여성들을 교육하는 우수한 대학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빈곤을 감소시키는 데 필수적이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인 방글라데시에서 교양대학과 전문 대학원 설립을 통해 이러한 신념을 실천하고 있다. 아시안 여자대학(AWU)은 교육으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뛰어난 여성들을 육성할 수 있다는 신념하에 창설되었다. 전통적으로 여아가 제대로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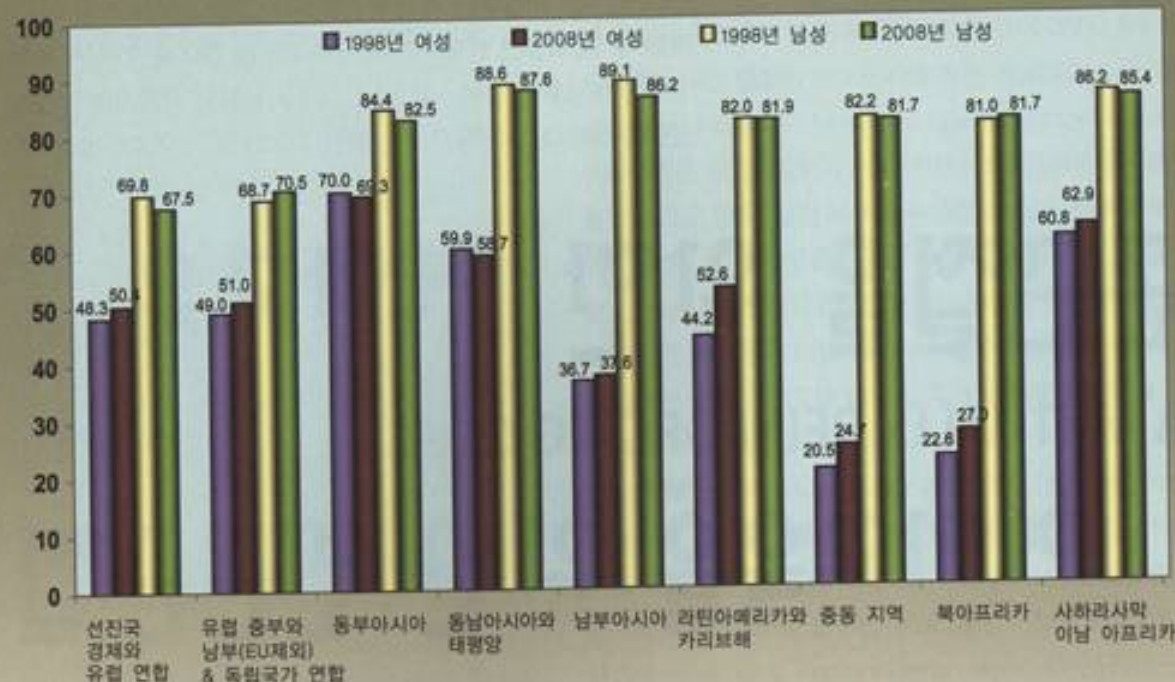
우받지 못하는 방글라데시를 비롯한 기타 아시아 국가들에서 성장한 여성들의 대부분은 세계적 이슈인 빈곤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 우리는 빈곤과의 싸움을 주도할 여성들을 훈련시키고 동기부여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는 무하마드 유누스(Muhammad Yunus)의 말을 빌리자면, "고등교육은 개인의 성공뿐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역량배양에 이르는 계단이 될 수 있다."

아시안여자대학은 세계은행과 유네스코가 개발도상국의 고등교육 현황을 연구하기 위해 구성했던 고등교육과 사회에 관한 특별 팀(Task Force on Higher Education and Society)에서 착안하여 설립되었다.

훈영구 방글라데시 아시안여자대학 부총장 대리 겸 학장

37쪽으로 이어짐 ▶

1998년부터 2008년, 성과 지역에 따른 성인 인구대비 취업 비율(%)



*2008년 자료는 예비추산
출처: ILO, 동향경제모형, 2009년 1월

9개 지역 중 7개 지역에서 성인 여성의 인구대비 취업률이 증가했다.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지역은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해, 중동과 북아프리카이지만 마지막 2개 지역은 성인 여성의 취업률이 30%보다 훨씬 낮은 상태이다. 동아시아,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지역만이 취업률이 감소했다. 하지만 동아시아에서는 성인 여성의 인구대비 취업률이 매우 높고 성별 간 인구대비 취업률의 차이가 모든 지역 중 가장 좁다. 북아프리카, 중부 그리고 동남부 유럽(EU제외)과 독립국가연합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지역에서 성인 남성의 인구대비 취업률이 1998에서 2008년 사이에 감소했다. 많은 지역에서 이러한 발전이 일어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노동 시장에 참여하는 여성의 수가 남성의 수에 비해 월등하게 낮다는 것이다. 선진국에선 노동 시장과 고용 시장에서의 성별 간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여성이 자유롭게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고도 집에 남아 있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몇몇 개발도상국들에서는 대부분의 여성엔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선택이 아닌 의무이다. 이런 지역의 여성도 일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일을 하려고 할 것이다. 물론, 여성이 아무 활동을 하지 않으며 집에 있다는 뜻은 아니다. 대부분의 여성은 수많은 가사와 무보수의 가정의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여성이 하는 가사는 계속해서 비경제활동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하는 여성은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된다. 모든 여성이 고용을 원한다고 가정할 순 없지만, 여성도 남성처럼 일하기를 선택하고 봉급을 받을 수 있는 자유를 원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가능성은 없다.

개발도상국에서의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는 초등교육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지만, 이는 전체적인 체계의 상호연관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아시안여자대학의 설립자이자 후원재단의 회장인 카말 아마드(Kamal Amad)가 특별팀의 운영위원으로 근무하였다. 2000년에 특별팀은 '개발도상국의 고등교육: 위험과 전망'(http://www.tlfe.net/)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한바 있다. 이 보고서에는 개발도상국들이 점차 세계화되고 있는 지식 기반의 경제 속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와 교육방법에 있어서 고등교육기관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개발도상국에서는 초등교육에 대한 개발 투자 수익이 가장 크다는 이유 때문에 고등교육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져 왔다. 초등 및 중등교육 확대가 강조되어 왔기에 초등학교 등록률은 상당히 상승하였으나 더 이상은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개발도상국에서의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는 초등교육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지만, 이는 전체적인 체계의 상호연관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체계 내에서는 높은 수준의 분석적 시각을 갖춘 지역 교육자, 경영자, 개혁가들을 배출해낼 수 없으므로 탄탄한 고등교육프로그램이 없다는 초등교육이 완전한 성공을 거둘 수 없다. 모든 국가는 정부와 민간분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등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필요하다. 이런 전문가가 없으면, 종종 국가의 주권이 위태로워진다. 빈곤문제를 해결하려면 최고의 지식과 자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의 비소문제는 초등·중등학교 졸업자들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일반인들의 문제도 이해할 수 있는 숙련된 기술자들이 필요하다.

개발도상국에서 경제, 사회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변화인자의 역할을 수행할 고학력 여성들의 핵심집단이 필요하다.

다. 아시안여자대학은 배경과 관계없이, 특히 가난한 시골지역민이나 난민 등 소외계층 출신의 능력 있는 여학생들을 모집하여 차세대 리더로 양성시킬 것이다. 나는 이 여성들이 자격을 갖춘 리더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개발 프로그램 이행의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바란다. 재정이 충분히 확보되었을 때조차, 숙련된 리더들이 충분하지 않으면 효과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어렵다. 학생들은 아시안여자대학의 프로그램과 같은 양질의 대학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리더로 훈련된다.

빈곤감소, 공평한 세계화와 지속 가능한 개혁은 개발도상국이 세계무대에 당당히 서고, 세계경제에서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리더들을 양성할 때에만 가능하다. 아시안여자대학은 가장 뛰어난 여학생들을 선발해 교육하는 것이 지역 리더들에게 개발 과정에서 권한을 갖게 하고, 제도, 경제, 사회구조의 개혁을 안에서부터 이루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아시아 각국에서 온 전도유망한 젊은 여성들과 공부하며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안여자대학의 학생들은 이미 각자가 속한 사회의 리더가 되기 위한 길을 걷고 있다. 2008년 10월 열렸던 대학 취임식에서는 이전에 컴퓨터를 사용해본 적이 없었던 한 캄보디아 여성이 고국으로 돌아가 시골의 어린소녀들에게 컴퓨터와 인터넷을 가르치겠노라고 말한 적이 있다. 또한 방글라데시 학생 중 한 명은 "여성들도 남성들처럼 고등교육을 받고 남성들처럼 일해야 한다. 방글라데시가 선진국이 되길 원한다면 교육받은 여성들이 필요하다. 남성들만으로는 방글라데시를 일으킬 수 없다."고 말하며 놀라운 통찰력을 보였다.

1995년 제4차 베이징 세계여성대회 총회에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했던 연설은 오늘날까지도 감동을 주고 있다. "우리는 전 세계의 사례를 통해 여성이 건강하고 교육을 받으면 그 가족이 번영한다는 사실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성에게 사회의 완전하고 동등한 파트너로서 일하고 소득을 얻을 기회가 부여되면, 그 가족이 번영하게 됩니다."

여성교육이 개발을 이루는 데 있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고등교육이 빈곤과의 싸움에서 강력한 무기이지만 종종 간과되기도 한다는 사실 역시 분명하다. 지금은 우리를 형평과 번영으로 이끌 차세대 여성들을 배출하려는 대학들에 투자해야 할 때이다. **UNC**

(번역자: 이지영)

미망인의 삶, 잊혀진 사람들

Lives of Widows. A Hidden Issue

라지 롬바(RAJ LOOMBA)

나는 미망인의 아들로 어머니가 겪어야 했던 고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자랐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할머니는 어머니에게 보석들을 모두 빼고 밝은 색 옷은 입지 못하게 하셨다. 당시에는 그런 제약을 이해하기에 너무 어려웠지만 내 결혼식에 있었던 사건으로 나는 큰 상처를 받게 되었다. 결혼식을 진행하던 힌두교 승려가 미망인은 신혼부부에게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식장 밖으로 나가게 했던 것이

망인들을 지원하는.

1997년 나는 영국에서 나의 아내, 비나 롬바(Veena Loomba)와 함께 롬바재단을 설립했다. 가난, 문맹, HIV/AIDS와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 분쟁과 사회적 불평등으로 고통 받는 미망인들과 그 자녀의 어려움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다. 단체의 이름은 1954년 인도의 펀잡(Punjab) 지방에서 미망인이 되었던 내 어머니 시리마티 푸시파 롬바(Shrimati Pushpa Wali

이러한 학대와 편견은 대개 종교적인 믿음이나 사회적 관습에서 기인한다.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남편이 사망하면 여성은 사회에서의 위치도 잃게 된다. 여성은 결혼관계 속에서만 인식되기 때문에 존재감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남편의 죽음이 아내 탓으로 돌려지고 미망인들은 “불길한 존재” 혹은 짐으로 전락하며 사람들의 배척이 시작된다.

다. 어떻게 나를 낳아 기르고 항상 내가 행복하기를 바랐던 어머니가 내게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단 말인가. 이 일로 나는 미망인들을 위한 자선단체, 롬바재단(Loomba Trust)을 설립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수 년 동안 롬바재단은 미망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인도의 가난한 미망인 자녀 3천 명 이상을 교육하고 있고 전 세계 가난한 미망인들이 더욱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12개국에서 빈곤, 질병, 전쟁, 학살, 강간과 사회적 불평등으로 희생당하는 미

Loomba)의 이름을 땄다. 성공한 사업가였던 아버지가 상당한 유산을 남겼기 때문에 어머니는 부유하게 생활할 수 있었다. 어머니는 학교에 다니지 못하였지만 7자녀 모두를 교육시킬 정도로 비전을 갖추신 분이셨다. 여자아이들은 학교에 다니지 못할 그 당시, 여자 형제 둘은 펀잡대학을 졸업하였고 나 역시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었다.

공공한 미망인들과 그 자녀가 처한 고통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지만 이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남편을 잃었다는 것은 남편의 존재가 안정된 삶에 필수인 사회에서 여성들이 아무

미망인들은 가난한 자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하며,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잊혀진 존재들이다.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의 죽음, 그로 인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은 어린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

런 보호와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모든 형태의 착취에 취약하며 심지어는 가족들에 의해 착취를 당하기도 한다. 이러한 학대와 편견은 대개 종교적인 믿음이나 사회적 관습에서 기인한다.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남편이 사망하면 여성은 사회에서의 위치도 잃게 된다. 여성은 결혼관계 속에서만 인식되기 때문에 존재감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남편의 죽음이 아내 탓으로 돌려지고 미망인들은 “불길한 존재” 혹은 짐으로 전락하며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기 시작한다.

재단의 광범위한 활동은 점차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르완다 정부에서 열어주었던 환영회를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폴 카가메(Paul Kagame) 대통령은 르완다에서 롬바재단이 공식 출범하는 행사를 백만 명에 가까운 무고한 양민들이 살해당했던 -이들 중 절반은 가정의 가장인 남성들이었다- 1994년 대학살 애도 주간 전날 개최하였다.

여러 나라에서 미망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중요하나 알려지지 않은 문제로, 특히 빈곤, 질병과 사회 부정의에 의해 야기된다. 미망인들은 가난한 자 중에서도 가장 가난하며,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잊힌 존재들이다.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의 죽음, 그로 인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은 어린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미망인들과 그 자녀를 지원하는 것이 전 세계 빈곤과 불의에 대항하는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며 국제사회가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믿는다.

4년 전 런던의 외무 연방성에서 대규모 국제 미망인 회의가 개최되었다. 미망인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증진하고, 개인, 기업, 정부와 비정부기관에게 빈곤, 결핍, 사회적 낙인, 법

적 차별, 에이즈와 같이 미망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 회의는 영국 황태자가 후원하고 롬바재단의 회장, 셰리 블레어(Cherie Blair)가 의장을 맡았으며 연방 사무총장을 포함, 비틀즈 존 레논의 미망인 요코 오토 등 전 세계의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였다. 힐러리 클린턴은 비디오클립을 통해 회의에 참석, 발표하였다.

2008년 채텀하우스(Chatham House)와 롬바재단이 저명한 민간연구조사기관 월드퍼블릭오피니언(WPO: World Public Opinion)에 의뢰하여 17개국에서 실시했던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망인과 이혼여성들이 다른 여성들에 비해 차별받는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WPO의 대표 스티븐 쿨(Steven Kull)은 “미망인과 이혼여성에 대한 차별은 전통적인 문화의 영향력이 상당한 일부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계적 현상”이라면서 차별철폐를 역설하였다. 선진국을 포함, 거의 모든 국가의 사람들은 미망인들에 대해 최소한 일정 정도의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였고, 차별의 범위를 수량화하는 대규모의 연구는 없었지만 수천 명의 응답자가 차별이 매우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답했다.

롬바재단은 6월 23일을 세계 미망인의 날로 선포하였다. 2005년 처음 영국 상원에서 기념행사를 시작하는데 이어, 해마다 세계적 규모의 행동을 통해 미망인 문제에 전 세계의 주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 날이 공인받게 된다면 새천년개발목표 중 적어도 5가지를 달성하는 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유엔이 세계 미망인의 날을 공인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unc** (번역자: 강예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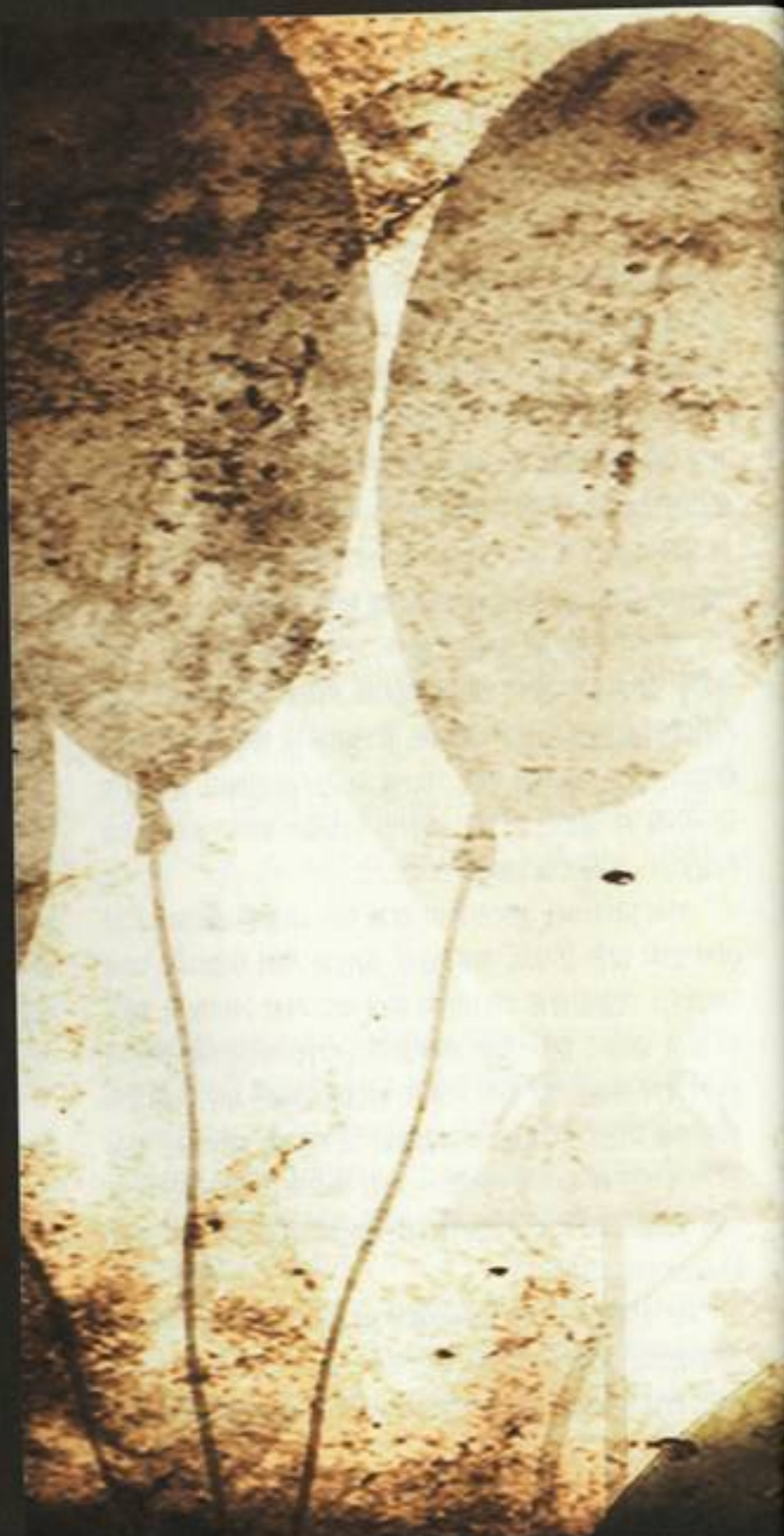
마그다 이야기

디디에 패신(DIDIER FASS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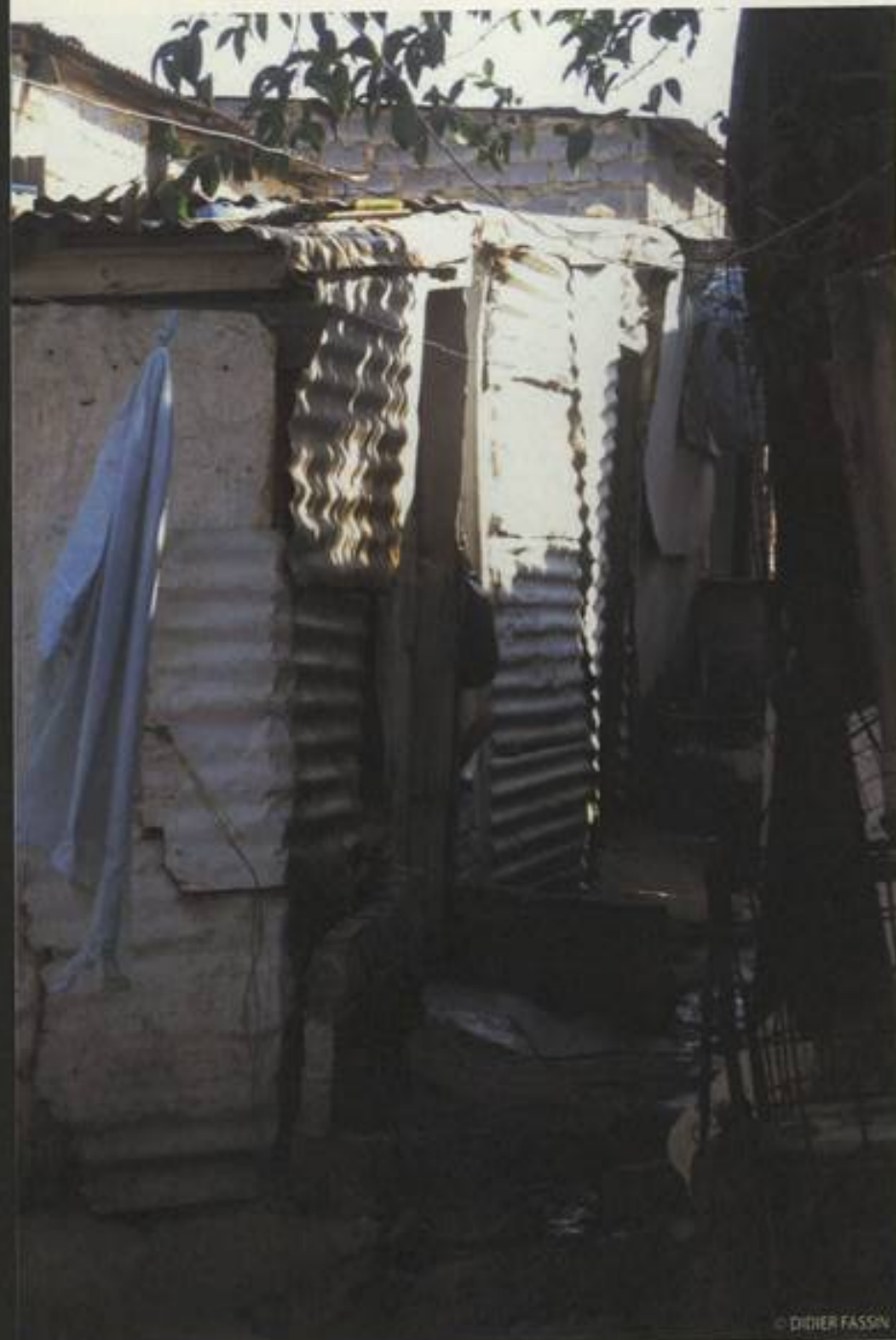
그녀의 이름을 마그다(Magda)라고 하자. 주인공의 이름은 가명이지만 이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로 그녀의 인생은 여성에 대한 육체적, 성적, 정신적 폭력 문제를 잘 보여준다. 마그다는 35년 전 아프리카의 레소토에서 태어났다.

가난한 시골 노동자에게 입양되었던 마그다의 할머니는 인종차별주의가 매우 심했던 오렌지 자유주(the Orange Free State)에서 이주해왔다. 하지만 지독한 가난 때문에 할머니는 부모님과 자녀들을 남겨둔 채 일자리를 찾아 다시 남아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마그다를 낳았을 때 어머니는 열다섯이었다. 폭력적인 남편에게 버림받은 어머니는 할머니처럼 일자리를 찾아 국경을 넘었다. 마그다는 할머니와 장손이자 가장노릇을 했던 삼촌에게 맡겼다. 그녀는 학교를 좋아했지만 청소하고 나무를 구해오는 등 집안일을 하느라 자주 결석을 해야 했다. 삼촌은 자주 술을 마셨고 마그다가 일곱 살 때 그녀를 성적으로 학대하기 시작했다. 마그다는 그 후 8년간 강간을 당했다. 할머니에게 자신이 견뎌온 일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할머니는 가장인 삼촌의 권위를 거스를 수 없다고 대답했고, 그제야 마그다는 할머니에게서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음을 깨달았다.

디디에 패신 프린스턴 고등과학원 사회과학 제임스 올펜슨 교수, 프랑스 사회과학 고등과학원 학장



마그다는 HIV 모자감염 예방조치를 받고 태어난 아들에게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의 이름을 따
네비라핀(Nevirapine)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었다.



어느 날 마그다의 어머니가 돌아와 이런 상황을 알아차리고 자신이 재혼하여 정착해 살던 나탈지방으로 그녀를 데리고 갔다. 하지만 어머니는 마그다가 남자를 유혹한다고 생각해, 만약 새 아버지와 성적 관계를 가진다면 죽여버리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머지않아 새 아버지는 어머니가 외출할 때마다 마그다를 학대하기 시작했다. 당시는 인종차별주의 정권이 막바지에 이른 무렵으로 전국이 정치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던 시기였다. 새 아버지는 게릴라 활동에 관여하고 있었고 청년들은 그를 두려워했다. 어머니는 딸이 학대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았지만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결국 마그다는 3년 후 집에서 도망쳐 요하네스버그로 갔다. 그녀의 나이는 열여덟이었다.

요하네스버그에서 마그다의 이모는 그녀에게 성매매를 알선해주었다. 이모는 바에 가서 마그다에게 '남자친구'가 될 남자를 고르도록 했다. 마그다는 호텔 조리사를 만나 성관계를 맺고 그가 묵고 있던 호텔 기숙사에서 몰래 그와 밤을 보냈다. 낮에는 그녀에게 먹을 것을 살 돈을 줄 고객을 찾아다녔다. 마그다는 한 혼혈가정에서 가정부

요하네스버그
알렉산드라 거주구역에
위치한 마그다의 집

로 일할 때까지 6개월을 이렇게 지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또다시 착취를 당했다. 얼마 후 마그다는 북쪽 지방 출신의 한 남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그들은 흑인 거주구

매우 급박한 삶의 환경과 국가로부터의 보호가 없는 상황에서는
비나 다스의 표현을 빌려 사회적 계약과 성적 계약의 관계가 무너진다.
생존을 위한 매춘은 신체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삶의 가치를
극도로 평가 절하시킨다.

역의 판잣집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했지만 함께 한지 얼마 되지 않아 상황은 나빠졌다. 마그다의 남편은 자주 술을 마셨고 그로 인해 부부가 다투는 일이 잦아졌다. 결국 이들은 파경을 맞게 되었다. 이때 마그다는 딸을 임신 중이었다. 하지만 태어난지 얼마 되지 않았던 딸은 병에 걸리게 되었다. 의사는 딸이 에이즈에 걸렸다고 했고 마그다 역시 HIV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결국 마그다의 딸은 한 살이 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다.

소외와 비난에 고통 받고 비탄에 빠져 있던 마그다는 병에 걸렸다. 당시 그녀는 HIV 환자들에게 재가치로 서비스를 제공하던 비정부기구에서 일하며 에이즈 퇴치 활동가 네트워크인 the Treatment Action Campaign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 단체들 덕분에 마그다는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의 임상실험에 참여할 수 있었다. 마그다의 상태는 빠르게 좋아졌다. 그녀는 아이를 갖기를 원했고 곧 임신을 했다. 마그다는 HIV 모자감염 예방조치를 받고 태어난 아들에게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의 이름을 따 네비라핀(Nevirapine)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었다. 이 후 마그다는 신문과 텔레비전에서 전염과 맞서 싸우는 전사로 몇 차례 보도되었고 에이즈 퇴치 운동의 영웅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마그다의 인생 속에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있어 역사적 맥락과 일상생활 경험과의 관련성, 거시 사회 요인들과 미시 사회적 상호작용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이 잘 나타나 있다. 당시 대부분의 시골 여성들처럼 마그다의 어머니는 일자리를 찾아 힘없는 할머니와 인연수심의 삼촌에게 마그다를 맡기고 떠났고 이로 인해 마그다의 인생에서 엄마의 삶의 궤적이 되풀이되었다. 신체적, 성적 학대의 순환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반복된다. 부분적으로는 '나쁜' 친척이나 친구들과 같은 개별적 요인도 작용하지만 주로 -물 파머가 구조적 폭력이라고 일컬었던- 사회적 불평등, 국가해체 등의 요인으로 인해 야기된다. 남성지배와 남성들에 의한 폭력은 경제적 착취와 인종 차별 문제처럼 일상생활의 일부분으로 발생한다. 사실 이 현상들은 서로 관련이 있다. 백인

중심의 정치사회제도 하에서 흑인가정들은 물질적, 공간적 제약을 받게 되고 혈족 및 결혼관계가 흔들리게 된다. 남성들은 특권을 빼앗기고 여성들이 나가 일을 해야 한다. 극한으로 내몰리고 정부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나 다스(Veena Das)가 표현했던 사회적, 성적 계약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이다. 생존을 위한 성매매(음식과 쉼터를 위해 맺는 성관계)는 신체뿐 아니라 인간 삶의 가치를 절하시킨다.

물론 마그다의 경우는 극단적이다. 그러나 서구국가들에서 이민 여성이나 난민 여성들이 가지는 정치적 취약성, 가정 내에서의 취약성과 같이, 신자유주의와 억압적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모든 상황 속에 잠재되어 있는 폭력은 악화되기 마련이다. 국가는 사적 친밀관계에서 뿐 아니라 사회세계 속에서도 폭력행사를 간접적으로 용인하고 직접적으로도 유발한다. 이런 의미에서 폭력을 이해하는 것은 자연화(폭력이 인간본성) 혹은 문화화(폭력은 아시아 문화의 일부)의 측면에서 폭력을 이해하는 것과는 다르다. 예를 들면 남부 아프리카 등지에서는 에이즈에 걸린 남자가 소녀, 심지어 영아를 강간하면 병이 낫는다는 설이 떠돈다. 마그다가 어릴 적 경험한 성 학대는 궁극적으로는 남성에 의한 폭력의 만연, 가족의 모호성, 어머니와 할머니를 포함한 가족들의 공모 그리고 이 비극적이고도 일반적인 상황들을 설명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보다 폭넓은 역사적, 사회적 시각들을 보여준다. 물론 고려해야 한다는 말이 결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런 종류의 폭력이 역사적, 사회적 사실들에 의해 기계적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단언할 수도 없다. 남아공 등지에서는 사회의 전반에 걸쳐 성적 학대가 발생한다. 피에르 부르디외가 분석했던 남성지배는 맥락과 계층을 넘어 존재한다.

다시 마그다 이야기로 돌아오자.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여성들과는 달리 폭력으로 고통 받은 후 자신의 인생을 다시 일으킬 수 있었던 점과 고통스런 경험을 통해 대의를 위한 헌신이라는 정치적 주관을 스스로 형성하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unc** (번역자 : 한재운)

모든 것이 무너져내릴 때

루시 애커먼 (RUTHIE ACKERMAN)

라이베리아는 특별법정과 법을 두어 강간범을 재판하고 여성과 여아의 역량을 강화시킴으로써 폭력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구글에서 "라이베리아 강간"과 "전쟁"을 검색해보라. 그러면 0.38초 안에 무려 470,000개의 결과를 보여줄 것이다.

그 중에는 2008년 아자마(Azama)가 썼던 블로그가 있다. 몬로비아시청에서 강간피해 여성들이 자신들이 당했던 강간과 폭력에 대해 증언하는 것을 목격했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들은 내 옷을 찢고 차례로 나를 강간했어요. 그리고 우발 오빠에게도 나를 범하라고 했지요. 오빠가 거절하자 죽이겠다고 협박했어요." 2003년 반군단체 화해와 민주주의를 위한 라이베리아 연합(Liberians United for Reconciliation and Democracy)의 공격 당시 자신의 오빠를 포

루시 애커먼 아프리카 전문 프리랜서 기자

함한 8명의 남자에게 강간을 당했던 로파(Lofa)출신의 한 여성이 말했다. "그래서 나는 오빠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당시 살아있는 유일한 내 혈육을 그들이 죽이길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빠와 나는 지금까지도 서로 말을 하지 않는다. 오빠는 나를 보면 다른 곳으로 피한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 사이는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 강간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그녀는 대부분 휠체어를 타고 지낸다고 했다. "아직도 그 사건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강간사건들은 1989년에 시작하여 14년간 지속되었던 내전의 막바지에 이르러 발생하였다.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는 분쟁기간 동안 라이베리아 인구의 60~70%가 성폭력으로 희생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고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숫자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여겨진다. 불행하게도 강간이 전쟁의 전술로서 사용되었던 경우가 라이베리아만이 아니다. 콩고민주공화국, 수단, 다르푸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그리고 르완다에서도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

분쟁이 종식된 후에도 라이베리아에서는 셀 수 없이 많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지만 이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전쟁이 끝났다는 것이 여성에 대한 전쟁도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유엔에 따르면, 2008년 1월과 6월 사이 349건의 강간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는 전 년도에 비하여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었다. 응급 처치와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보건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더욱 고통을 겪는다.

사실 라이베리아에는 전쟁 시에 여성들과 소녀들을 강간한 군인들을 처벌하지 않았던 관행(impunity)이 아직도 만연해있다. "라이베리아 사람들은 평화가 재건되었기 때문에 여성과 아동에 대한 성폭력이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 이들에 대한 성폭력은 매일매일 증가한다. 특히 피해자들이 피해자를 알고 있을 때에는 더욱 그렇다"고 여성개발부(Ministry of Gender and Development) 연구·기술 서비스 담당 차관보 패트리샤 카마라(Patricia Kamara)가 몬로비아에서 이틀간 열렸던 워크숍 당시 기자들에게 말했다.

다행스럽게도 아프리카의 첫 여성 대통령인 엘렌 존슨 설리프(Ellen Johnson Sirleaf)는 진정한 여성 옹호자이다. 그러나 강한 여성 대통령이 있다고 해도 성폭력 척결은 버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제사회가 처음으로 라이베리아에서 일어나는 강간의 공포에 대해 눈을 뜨게 된 것은 라이베리아 밖에서 일어났던 사건 때문이었다. 2009년 7월 미국 아리조나에 거주하던 8살 라이베리아 난민소녀는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 창고에서 4명의 라이베리아 젊은이들에게 강간을 당했다. 피해자들은 소녀와 그 가족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은 오히려 피해자인 소녀를 비난했다. 언론은 분노했고 경찰은 소녀를 가족과 분리시켜 위탁보호시설로 보냈다.

하지만 어떤 언론에서도 라이베리아에서는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면 피해자들이 비난받고 가족과 이웃에게 소외당한다는 사

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것이 다수의 성폭력 사건들이 신고되지 않고 가해자들이 자유로이 활동하는 이유이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종종 법정 밖에서 사건을 해결하거나 기소 자체를 막으려 든다. 라이베리아 경찰청에 의하면 2008년에만 780건의 강간 및 성폭력 사건이 여성아동특별보호부에 신고 되었지만 이 중 법원으로 넘겨진 것은 채 4분의 1도 되지 않았다.

긍정적인 변화

라이베리아에서도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강간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2008년 12월 특별 법정을 설립했다. 개관식 연설에서 설리프 대통령은 "기소된 강간범에 대한 보석을 금하고 매우 심각한 사건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징역 7년에서 무기징역까지)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강간수정법안(Rape Amendment Act)이 지난 2006년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간과 성폭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밝히며 이를 근절하는 데 있어 법원이 가지는 중요성을 인정했다.

또한 대통령은 성폭력 범죄 부서를 법무부 관할 하에 설치하고 일반인들이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강간사건을 휴대전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핫라인을 개설하였다. 전국 학교에 여학생들을 위한 화장실을 설치한 것 역시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화장실이 설치되기 전에는 부모들이 강간 등의 범죄를 우려하여 딸들을 학교에 보내지 못했었다.

강간범의 기소와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설리프 대통령의 노력 중 하나는 보다 많은 여성들이 자신들이 당했던 부당함에 대해 나서서 이야기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가해자들이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에 따라 처벌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법부 개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고 경찰, 법원 및 교도소 체계가 효율적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모든 부분이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강력한 여성 대통령이 있더라도 유죄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은 어렵다. 2009년 뉴욕에서 있었던 인터뷰에서 설리프 대통령은 "라이베리아의 사법부는 강간을 반인도적 범죄로 받아들이 만큼 성폭력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강간 피해자와 그 가족들 역시 피해사실을 숨기려 재판에 회부하기를 꺼린다."

여성에 대한 폭력의 근절은 라이베리아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존재하는 전통적인 성 역할에 도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성 간에 완전한 평등을 이룰 때 까지 강간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전쟁터 안이건 밖이건 강간이 위협과 공포 도구로 사용될 때 고통 받는 것은 여성만이 아니다. 사회 전체가 무너져 내린다.

라이베리아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과 싸우는 것은 성 역할에 도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별 간에 평등성이 충분히 존재할 때까지 강간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강간이 전쟁터와 그 밖에서 협박과 공포의 도구로 사용되는 때 그것은 단지 여성의 고통이 될 뿐만 아니라 전체로서 사회는 산산조각난다. **unc** (번역자: 한재운)

멀고 험난한 난민 삶의 여정

멀키 알 샬마니 (MULKI AL-SHARMANI)

국내 추방된 차드(아프리카 나라 중 하나) 소녀들이
민병대에 의해 공격받고 볼타비안 해마일 마을에서
나무를 모으고 있다. 할감을 모으는 것은 국내살상민과
특히 고립된 지역에서 성폭행을 당할 위험이 있는
여성들에게 위험한 일이다.

난민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양측은 사람들이 다
을 두 가지 사실에 동의한다. 그 문제의 심각성이 중대하다는 것과 지난
30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노력한 결과의
효과에 대해서는 속고해보아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이다.

난민 여성과 소녀들은 여러 형태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무장 충돌로 인한
아주는 여성들과 소녀들을 살인, 강간, 성 노예제, 매춘 강요, 인신매매, 국빈과
같은 상황에 노출하며 또한 동거자, 친척과 이웃으로 인한 폭력에 노출될 위험을
높이고 있다. 유엔여성발전기금(United Nations Development Fund for Women,
UNFEM)의 최근 보고서는 1994년 르완다 대학살 동안 50만 명의 여성이 강
간을 당하였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보
고서는 전 유고슬라비아 내전 당시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서 6
만 건의 강간이 신고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2000년 조사를 바탕으로 하는 또
다른 최근의 보고서는 위와 비슷한 수치의 놀랄만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다. 시
에라리온 무장 충돌 당시 거주지를 잃고 방황하는 5만에서 6만 4천 명의 여성들
이 성적 학대를 받았다. 더욱이 해당 보고서는 2004년 10월에서 2005년 2월까
지 국경 없는 의사회(Médecins Sans Frontiers)가 다르푸르주에서 강간의 희생
양이 된 500명의 여성을 보살폈다고 보고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들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도입
되어 오고 있다. 1993년, 유엔은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선언(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을 공표하였다. 또한 1998년 국제형사재
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의 로마 규정은 강간, 성 노예제, 매춘 강
요, 강제 임신 및 강제 불임을 반인륜적 범죄 목록에 추가하였다. 실제로 ICC에
기소된 사건들 중 절반은 강간 및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들이다. 구 유고슬

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시에라리온 특별 법원에 기소된 사건들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다.³

1979년 유엔 총회가 채택한 여성차별 철폐 협약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은 여성 권리의 다양한 침해 사항들을 해결하는 가장 포괄적인 국제적 해결 도구이다. CEDAW는 직접적으로 폭력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협약 해석 및 국가별 실행 감독을 실행하는 위원회가 1992년 일반 권고 제19항에 회원 국가들이 해당 국가 내의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하는 사항을 포함했다.

난민 여성과 소녀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그들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엔난민기구(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는 일련의 정책들을 고안하였다. 1991년 유엔난민기구는 '난민 여성 보호 지침'을 출판하였다. 이 문서는 난민 여성 보호의 결정들을 보충하기 위하여 유엔난민기구 직원과 실행 파트너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정책 방안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것은 여성을 성폭력에 취약하게 만들고 생존에 필요한 자원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불안정한 난민 캠프 설계 구조와 원조 배분 절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4년 뒤인 1995년에 유엔난민기구는 난민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 유엔 기구들과 정부, 비정부 기구들에게 행동 강령 체계를 제

공하기 위해 '난민 대상 성폭행: 보호와 대응에 관한 지침'을 발간하였다. 2003년도에 갱신된 이 지침서는 난민뿐만 아니라 귀환자와 국내 거주자를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가능한 지침서이다. 더욱이 가장 최근의 유엔난민기구 문서는 성폭력 및 성차별적 폭행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예방적 차원의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2000년에는 '난민 여성을 위한 유엔난민최고대표의 5가지 약속'이라는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었다. 이 다섯 가지 중 하나는 난민 여성과 소녀에 대한 성적, 성차별적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개발도상국가 수준의 전략을 다루고 있다. 다른 조항들은 난민 캠프

운영에 있어 등록, 음식 배분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율성과 적극적인 역할 실행 부족으로 인한 난민 여성과 소녀들의 권리 박탈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 하나의 유엔난민기구 관련 정책 문서로는 '2000년 난민 자격 결정을 위한 절차와 기준에 대한 보완 지침서'가 있다. 이 문서는 난민의 자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 법적 구속력이 있는 도구는 아니지만 난민 자격 부여를 고려하는 데 있어 성별을 확대의 기준으로 고려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것은 난민 여성 보호 차원에서 성별에 따른 민감한 사항들을 정책화하기 위한 바람직하고 중요한 절차이지만, 1951년 유엔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1967년 난민 지위에 관한 의정서, 1969년 아프리카 연합기구 난민 협정과 같은 기존의 국제적 장치와 같이 난민 자격 획득에 성차별적 확대를 인지하여 그것을 유효한 판단근거 인정하는 데

실패한 문제점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관점을 국가적 차원에서 시도한 좋은 예로 캐나다, 미국, 호주정부가 있는데 이들 국가들은 난민 자격 부여 기준으로 성차별적 확대를 인정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다.⁵

더욱이 비정부 조직들과 많은 나라에서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난민 자체조직들이 폭력의 희생양이 된 난민 여성과 소녀들의 재활, 지원 및 지위향상을 위해 매일 같이 도움을 손길을 뻗으며 적극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⁶

유엔 기구들과 몇몇 국가들이 난민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민감한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더욱 포괄적인 관점의 이해를 시도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인정할만하다. 예를 들어, 위에서 언급된 유엔난민기구 정책 문서들은 난민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폭력의 다양성과 함께 폭력의 연결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집단 강간 및 성폭력 그리고 극빈과 비참한 주거 상태는 별개의 폭력형태로 구별할 수 있다. 전자는 성적, 후자는 구조적 형태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형태의 폭력은 보통 성차별에서 기인한다는 점과 난민 여성들이 불평등적이고 차별적인 사회, 정치적 구조와 관계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서로 연관되어 있다.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폭력 간의 연결 고리를 찾아내어 이들의 연관성의 중요성을 밝혀낼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이

러한 작업이 주효하게 진행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다.

난민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구조적 폭력은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이들에 의해 공개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성폭력이 위법 행위이며 충격적이라는 것조차 인지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아마도 난민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대한 대중의 인지가 부족한 탓일 수도 있다. 또한 이것은 장기간에 걸친 거주 이동의 상황에서 난민 보호에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난민 수용 국가들의 의지부족 및 만족할 만한 법적, 정치적 경제적 정책 마련에 있어 미온적인 태도를 부분적으로 설명해준다. 이러한 환경에 놓여있는 난민 여성들은 이러한 정책 실패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며, 이것은 곧 구조적 폭력이라는 그들의 일상적인 삶의 형태로 귀결이 된다. 이 난민 여성들은 열악한 생계수단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당해야 하고 적절한 의료 및 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하며, 위생적이지 못한 집단 거주지 생활 속에서 성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위험한 상황 속에 살면서 위생적인 성생활과 출산을 위한 개인의 선택은 물론 이에 관련된 기초적인 생활권을 거의 제공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이들은 불안정과 불확실한 형태의 삶을 지속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나는 오랫동안 거주지로 귀속하지 못하고 있는 난민 남성과 소년들 또한 구조적 폭력으로 볼 수 있는 취약성과 폭력으로 고통 받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난민에 대한 구조적 폭력은 성차별적인 확대를 일으키는 특성들이 내재해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조건에 놓여있는 난민 여성은 육체적,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되는 매춘행위와 가사노동을 통해 소득을 올리는 한편, 그들 가족과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그러므로 특히 장기간에 걸친 거주지 이탈의 경우 구조적 폭력의 성차별적 특성에 더욱 주목해야 하며 정책 및 캠페인 계획 시에 이러한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난민 분류화는 유엔난민기구와 난민 수용 국가들이 난민들에게 그들의 보호와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한 업무 특성상 본질적으로 내재해있는 사항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난민 보호의 취지를 가끔 왜곡시키게 되는데, 이것은 자금 및 서비스 부족으로 인하여 유엔난민기구 직원과 난민 수용 국가들이

인도적 지원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 난민 여성들을 수용하는 데 엄격하고 편협한 기준을 설정하는 상황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는 분류하기 어려운 형태로 만연해있는 폭력을 경험하는 여성에게 특히 더 해로울 수 있다. 남쪽의 도시에서 장기간 이주생활을 하는 30대 난민 여성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녀는 남편에게 버림받고 두 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으며, 수년의 가사업무로 건강에 이상이 있다. 또한 매일 이웃 남성들의 성적 접근을 막기 위해 피해 다녀야만 한다.

이 여성이 겪는 고통과 보호의 필요성은 함께 거주하는 남성에게 의해 강간을 당해온 15세 난민 소녀와 고국에서 떠나오는 여성 동안 강간을 당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21세 난민 여성의 고통과 어떤 연관이 있으며 또한 그들의 고통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다양한 폭력의 경험들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여 이러한 난민여성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그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합당한 정책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난민 여성들과 소녀들이 처해 있는 현실은 다양하고 복잡하며 또한 역동적이기 때문에, 이들이 겪는 고통에 대한 깊고 다각적인 시각의 이해가 필요하며 또한 실행 정책들은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항들이 필수적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실현하기는 절대로 쉽지가 않다. **unc** (번역자: 엄영선)

이주

1. UNFEM, 여성을 향한 폭력 - 사실과 인물들, 2007년, www.unifem.org/violence_againstwomen/facts_figures_violenceagainst-women_2007.pdf.
2. FIN/IOCHA, 망가진 몸들, 망가진 꿈들: 드라나 여성을 향한 폭력, 2005년 11월.
3. UNFEM, 1번과 동일.
4. 이 정책 문서는 2008년 유엔난민기구 여성과 소녀 보호를 위한 안내서에 의해 대체되고 갱신되었음.
5. 캐나다는 1993년에 성 관련 박해를 두려워하는 여성 난민 청구자들을 위한 지침서를 발간했음. 미국은 1995년에, 호주는 1996년에 이 선례를 따라 발간.
6. 이러한 조직들의 명단을 보고 싶다면 유엔난민기구를 참고, 비정부기구와 함께 하는 예년 자문(상담) 간단한 파트너 설명, 제네바, 스위스, 2009년.
7. 이 것들은 내가 이집트의 소말리아 파난민 인구에 실행한 연구의 정보원이 되어준 파난민 여성들의 실제 경험들이다.

인신 매매

예방 기소 보호

루스 디언리(RUTH DEARNLEY)
스티브 초크(STEVE CHALKE)

당신은 겨울 외투를 구입하기 위해 얼마나 지불할 수 있나? 그 외투를 만든 아이에게는 얼마를 지불하겠는가?

50년 전 노예제에 대한 비난은 고리타분한 과거의 역사처럼 보였다. 하지만 역사는 반복되기 마련이다. 오늘날 우리는 인간 노예가 다시금 끔찍한 현실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많은 남자, 여자, 어린이들이 매매되고 착취당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24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강제노동에 매매됐고 이 중 6~8만 명이 매년 국경을 넘어 거래되고 있으며 1만 2천 명의 아이들이 서부 아프리카에 있는 코코아 농장에서 노예로 일하고 있다. 인신매매의 정확한 규모와 수치를 찾기는 불가능하지만, 수치에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심각하고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수치 하나 하나가 인간의 삶의 파괴를 의미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인신매매는 거의 모든 대륙과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다. 우리가 사는 곳이 인신매매의 근원지, 목적지가 되기도 하고 혹은 경유지가 되기도 한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이 범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 없다.

인신매매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 알려지자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방안이 마련되어 왔다. '인신매매를 막아라'가 이러한 해결책 중 하나이다. 인신매매의 영향을 직접 목격한 이후 우리는 2006년부터 인신매매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환기시키고 이를 막기 위한 정치적인 의지를 형성하기 위해 비공식 연합단체 활동을 시작하였다.

루스 디언리 'STOP THE TRAFFIK'(반 인신매매 단체) 최고경영자
스티브 초크 반 인신매매 단체활동 특별 자문위원, 목사



이브(가명)가 캄보디아의 남쪽 항구 도시인
시아누크빌에 위치한 값싼집 안에서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는 오후의 햇빛에
검은 실루엣을 그리며 서있다.
이브는 15살의 나이에 납치되어
\$130에 매춘부로 팔려나간 이후로부터
상업적인 성(性) 종사자로 일해 왔다.

우리의 짧은 경험으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인신매매 근절 노력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이 문제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었다. 인신매매 및 이에 따른 근절의 노력들은 주로 밀입국, 이주, 망명, 매춘 및 다른 형태의 조직 범죄와 주로 연관되어 있다.

우리의 짧은 경험으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인신매매 근절 노력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이 문제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었다. 인신매매 및 이에 따른 근절의 노력들은 주로 밀입국, 이주, 망명, 매춘 및 다른 형태의 조직 범죄와 주로 연관되어 있다.

인신매매의 핵심은 그들에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한 강제 착취에 있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사람을 이동시키는 것이 인신매매이며 이것은 국내는 물론 국경을 넘어서도 발생하고 그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만약 그들이 숙임수나 사기를 당한 것이라면, 어떤 사람은 오히려 가까이 착취 상태를 받아들이려 할 것이다. 하지만 돈을 내고 다른 나라로 밀입국한 사람들과 달리 인신매매의 희생자들은 스스로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자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

국제 인신매매는 반드시 이주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지만, 인신매매 희생자들을 단순히 불법 이민자로 취급하거나 인신매매 근절 노력을 국경지역의 경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제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매춘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고 해도 성매매에 대해서는 누구나 불쾌감을 느끼며 성 산업을 통제하는 정책들은 인간매매 근절을 위한 하나의 해결 방안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비슷한 차안책을 요구하는 조직적인 마약 및

무기 매매와 인신매매의 여러 공통점으로 인해, 우리가 만약 인신매매의 희생자들을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한다면 그것은 그들에 대한 또 다른 인격적 차별이 될 것이다.

인신매매 근절과 불법 거래상인 처벌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다양한 시도와 대책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이 범죄의 복잡성을 인지하는 것이다. 인신매매 방지 정책들은 매매가 발생하는 국가의 여성교육을 증진해 소녀들이 매매에 취약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서부터 매매 종착 국가 경찰의 급여를 인상하여 그들이 뇌물의 유혹에 쉽게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까지 모든 정책 분야에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는 인신매매 문제가 일부 대책위원회와 전담 팀 구성으로 근절될 수 있는 문제로 그 심각성을 축소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이 문제가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며 이것을 근절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몇몇 감탄할 만한 성과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유엔은 인신매매 피해자 중심으로 작성된 인신매매 방지, 근절, 처벌을 위한 의정서를 2000년에 마련하였다. 지금까지 총 177개국 이 의정서에 서명했다. 2005년 유엔은 인신매매 근절 활동을 위한 유럽의회 협약을 체결하여 유럽 내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협력 및 약속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인신매매가 무엇인지 모르거나 혹은 관심조차 없다. 우리는 여러 사회계층의 이러한 태도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8년 2월 우리는 인신매매 근절을 요구하는 150만 명의 서명을 유엔에 전달하였고, 그 결과 우리 단체 창립자인 Steve Chalke는 인신매

매 근절의 위한 연대 구축인 유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United Nations global initiative to Fight Human Trafficking, UN.GIFT) 특별 고문으로 임명되었다. 이 때부터 우리는 인신매매는 오로지 국제 협약에만 의존해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굳은 신념으로 일반 대중의 호응을 지속적으로 형성해왔다. 현재 우리는 주로 다음 세 가지 캠페인에 초점을 두고 있다.

첫 번째는 유엔과 협력하여 운영되는 역동적인 글로벌 프로젝트, '자유 나누기 시작(Start Freedom)'으로 이것은 젊은이들의 참여와 인식확대를 목표로 그들이 인신매매와 관련된 여러 이슈들을 알아갈 수 있도록 기획된 캠페인이다. 전체 인신매매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18세 미만이라는 사실이 이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불법 거래를 막을 수 있는 잠재력이 그들에게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우리는 그리스, 멕시코, 네팔과 같은 인신매매의 발생지, 경유지, 그리고 목적지 국가들로부터 어떻게 젊은 사람들과 학교, 종교 단체, 지역 공동체들이 '자유나누기 시작'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왔다. 지역 공동체가 우리 캠페인의 중심이다. 2010년 3월 '자유'의 한 주 동안 젊은 사람들이 이 활동에 참여하여 서로 친분을 쌓으며 인신매매 반대 활동을 위한 그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을 공유하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의 또 다른 핵심 프로젝트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지역 공동체 활동(ACT)'이다. 이것은 ACT 그룹으로 공동체 구성원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는 이 그룹들이 많은 정보를 확보하여 인신매매를 찾아내고, 인신매매가 지역 공동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며 지속적인 매매를 막을 방법을 배우도록 돕고 있다. 그들은 실종된 아이들의 정보를 얻고, 지역 단체, 전문가, 지역 리더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인신매매가 지역 사회에서 시작되므로 지역사회에서부터 근절될 수 있다고 믿는다. ACT 프로젝트가 전 세계적으로 시작되면서 여러 형태의 인신매매 근절을 돕기 위해 세계 여러 사람들이 동참하여 인신매매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현재 시험 중인 ACT의 두 번째 단계가 2010년에 시작될 것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의 성취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인신매매에 대한 정보수집을 목표로 하는 공동체 연구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인신매매 방지, 피해자 처벌, 희생자 보호와 같은 우리의 핵심 목표에 크게 이바지 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세 번째 프로젝트는 초콜릿 캠페인이다. 이것은 아동 인신매매와 강제 노역이 널리 행해지는 것으로 입증됐고 국제 코코아 이니셔티브와 같은 국제 이니셔티브에 의해 잘 알려진 코트디부아르에서 전 세계 코코아의 3분의 1이 생산된다는 사실을 통해 알려졌다. 아동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국제적 목표 기한이 초콜릿 생산자들로 인해 지연됐으므로 우리는 대규모 초콜릿 생산자들에게 그들의 상품이 '매매노역 금지(Traffic free)' 상품인지 알려줄 것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대부분의 생산자들의 상품 공급라인이 아동 노역에 의존해왔으므로 가장 최근까지도 그들은 이것을 보충할 수 없었다. 우리의 초콜릿 캠페인은 많은 사람들이 코코아 산업에서 자행되고 있는 아동 인신매매에 대한 인지를 높이도록 독려하고, 대규모 초콜릿 생산자들에게는 현재 최고의 '매매노역 금지' 상품 인증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 무역(Fair Trade) 또는 열대우림동맹(Rainforest Alliance)과 같은 인증서를 발급받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돕고 있다.

우리의 캠페인 전략은 수많은 대중 후원자들에게 의지하고 있다. 사람들은 공정무역 초콜릿 풍류 기금을 조성하고, 생산자들에게 편지와 전화로 설득하고, 공정무역 인증을 할 때까지 구매거부를 행사하고, 사람들이 도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인식 제고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룬 성공은 훌륭하다고 할 수 있다. 캐드버리

(Cadbury)는 낙농우유 공정무역에 가입할 것을 약속하였고, 마스(Mars)는 2010년에는 갤럭시 바(Galaxy Bar)를 2020년까지는 자기 회사 전 제품을 열대우림동맹에 인증할 것을 약속하였다. 공정거래 킷킷(Kit Kat)을 위해 몇 주 동안 네슬레(Nestlé)를 공략한 결과 그들 또한 올 1월 영국에 공정거래 4조각 킷킷을 출시하면서 공정거래 경향을 따르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것은 오직 시작일 뿐이고 그 끝은 아직 멀지만 하다.

오직 정부, 사기업, 비정부 기구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 공동체들의 결연한 협력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 끔찍한 인신매매의 종식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인신매매를 막아라'는 21세기 노예의 존재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진 1,500개의 단체와 수천 명의 회원으로 이루어진 독립자선 단체로 발전되었다.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지역 공동체들은 행동하기 시작하였고,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고 세계 각 정부들은 인신매매는 금지되어야 한다는 통일된 메시지에 반응을 보이고 있다. **UNC** (번역자 : 이윤선)

블루하트 캠페인 (The Blue Heart Campaign)

블루하트는 같은 사람을 사고 파는 사람들의 비정함을 연상시키는 동시에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슬픔을 나타내기도 하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유엔의 표상인 파란색을 활용한 것은 인간 존엄성을 파괴하는 범죄 근절을 위한 유엔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다.

붉은색 리본이 HIV/AIDS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국제적 상징이 된 것처럼, 이 캠페인은 블루하트를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국제적 상징으로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블루하트 착용은 인신매매에 대한 인식 제고에 대한 기여는 물론 이러한 범죄 근절을 위한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PO Box 500, 1400 Vienna, Austria. E-mail: blueheart@unodc.org



여성인권에 대한 소고

A Brief Survey of Women's Rights from 1945 to 2009

프란시카 드 한(FRANCISCA DE HAAN)

1945년 이후의 전 세계 여성 인권 투쟁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이 기간에 전개되었던 투쟁의 지속성과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엔의 전신인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 시절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또한 최소 1975년까지 국제적인 차원에서 여성인권에 앞장 서 왔던 소위 '전통적인 여성단체'들의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세계 여성의 해였던 1975년 당시에는 유엔의 협의지위를 가지고 있던 총 24개의 국제 비정부기구 중 국제 여성단체는 세계여성단체협의회(ICW: International Council of Women), 국제여성연맹(AW: International Alliance of Women), 국제여성민주연맹(WDF: Women's International Democratic Federation), 이 3개 단체였다. 이 세 단체가 협의지위를 획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래 1945년부터 2009년 동안의 여성인권 역사에서 명확히 다뤄질 것이다.

국제연맹 산하 여성단체들

1888년 설립된 세계여성단체협의회(ICW)와 1904년 설립된 국제여성연맹(AW)을 포함, 국제연맹에서 활발히 활동

했던 국제 여성단체들은 장기적으로 여성평등을 위한 투쟁을 위해 중요한 두 가지 일들을 함께 이뤄냈다. 그 첫 번째는 여성의 지위가 국제적인 차원의 문제인 것을 인식한 것이고 두 번째는 유엔의 여성지위위원회(CSW: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의 초석이 된, 1937년 국제연맹 여성의 법적 지위에 관한 전문가 위원회(Committee of Experts on the Legal Status of Women)의 설립이다.³

이 위원회는 세계여성단체협의회에서 활동하던 스웨덴의 커스틴 헤셀그렌(Kersten Hesselgren), 프랑스의 수잔느 바스티-바스드방(Suzanne Bastid-Basdevant)과 여성지위위원회(1946~1950)와, 국제여성연맹에서 부회장 직을 역임했던(1946~1952) 미국의 판사 도로시 케넌(Dorothy Kenyon) 등을 포함한 남성 3인과 여성 4인으로 구성되었다.⁴

1945년~1975년

1945년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페미니스트 몇 명이 자국의 대표 자격으로 유엔 창설을 위한 회의에 참가했다. 이들은 국제연맹 때부터 시작되었던 활동들을 계속해서 진행하며 여성들이 겪었던 전쟁과 저항의 경험을 구축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여성들이 이루어낸 공헌에 대

해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또한 여성인권 보호가 보다 광범위한 유엔의 인권 의무 중 하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협력했다. 국제여성연맹의 부회장이었던 버사 루츠(Bertha Lutz, 1952~1958), 세계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이었던 아멜리아 카발레로 드 카스틸로 레돈(Amelia Caballero de Castillo Ledón, 1947~1957), 이사벨 산체스 드 우르다네타(Isabel Sanchez de Urdaneta), 이사벨 P. 데 비달(Isabel P. de Vidal)과 제시 스트리트(Jessie Street)는 유엔헌장 전문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여성지위에 관한 소위원회(Sub-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an)를 설립하기 위해서 노력했다.⁵

1946년 초 열렸던 유엔총회 개회식에서 엘레노어 루즈벨트(Eleanor Roosevelt)는 '세계 여성들에 대한 공개 서한'을 낭독했고, 이 서한에는 새로운 국제정치와 협력의 장에서 여성이 수행해야 할 역할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⁶ 이것은 처음으로 여성의 목소리가 유엔에서 울려 퍼진 사건이었고, 서한은 1948년부터 1952년까지 여성지위위원회 의장직을, 1957년부터 1963년까지는 프랑스 여성위원회 회장과 세계여성단체협의회회장을 지냈던 프랑스 대표 엘렌 르포슈(Hélène Lefauchaux)의 주도로 작성되었다. 여성

2009년 7월, 이라크의 무르디스탄 지역의 새로운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 후보들을 뽑기 위해 수많은 투표자들, 특히 여성들이 선거에 참여했다. 독립고통선거위원회에서 나온 유엔 선거 위원들이 이번 선거를 조직하고 주최했다.



지위위원회에서 엘렌 르포슈의 전임자는 보딜 베그트럽(Bodil Begtrup)으로, 그녀는 1946년부터 1949년까지 덴마크 여성위원회의 회장과 국제여성연맹의 이사직을 역임한 바 있다.

1948년 12월 유엔은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였다. 문안 작성과정에서 미네르바 베르나디노(Minerva Bernardino)같은 여성들이 노력한 덕분에 1조는 당초 제안되었던 "모든 사람(men)은..."이라는 문구 대신 "모든 사람(human beings)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로 쓰일 수 있었다. 1950년 여성지위위원회 의장이었던 베굼 안와 G. 아메드(Begum Anwar G. Ahmed)는 1955년부터 1970년까지 국제여성연맹의 이사, 부회장 및 회장을 지냈다. 유엔과 함께 일하던 세계여성단체협의회와 국제여성연맹의 인사로, 여성으로는 최초로 1972년 부 사무총장을 지냈던 헬비 시필라(Helvi Sipilä)가 있는데 임명 당시 그녀는 핀란드 여성위원회 회장이자 세계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이었다.⁸

1945년 말 파리에서 설립된 반파시

즘, 좌파 페미니스트 성향의 국제여성민주연맹은 유엔관련 주요 국제 여성단체 중 하나였다. 1947년에서 48년 세계여성단체협의회, 국제여성연맹과 국제여성민주연맹은 유엔의 경제사회이사회 협의 지위를 얻어냈다. 협의지위 획득으로 이 단체들은 여성지위위원회 옵저버로 참석하고 위원회의 보고서와 문서를 열람할 수 있었으며 승인을 받아 회의에서 발언도 할 수 있었다. 세 단체의 문헌과 출판

물들을 살펴보면 이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유엔과 여성들 간의 가교역할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알 수 있다.

냉전시대

그러나 이후 시작된 냉전은 이러한 협력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놓았다. 여성지위위원회가 평등을 위한 법적 기반 확보를 위해 기울였던 많은 노력에도 불

1975년 이후에 국제 여성운동은 지구적 풀뿌리 여성 운동으로 변화하였고, 북반구의 엘리트 여성의 영향력은 점차 감소하였다. 뿐만 아니라 유엔 정책에서 희생자, 객체로서의 여성에서 행위 주체자로서의 여성으로 담론의 변화가 일어났고 여성에 대한 역량강화가 강조되기에 이르렀다.

프란시카 드 한 영국리 소재 유럽중앙대학교 여성학대학 박사과정 지도자 및 교수

공식적 차원에서 여성인권이 거의 보편적으로 인정받고는 있지만 유엔 양성평등 지수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 하위권에 속하는 국가에 상관없이 종속적 지위의 뿌리깊은 구조와 억압은 만연해 있다.

구하고 단체들의 배경과 신념이 각기 달랐던 탓에 여성인권을 위한 국제적 투쟁은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⁸⁾

그 당시 가장 규모가 크고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국제 여성단체, 국제여성민주연맹이 1954년 4월 전적으로 냉전정치 탓에 협의지위를 상실한 것은 이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협력했던 단체와 적대적이었던 단체 모두 이 과정이 비민주적 절차였다고 비판했다. 제시 스트리트(Jessie Street)는 유엔사무총장 다그 하마술(Dag Hammarskjöld)에게 개인적 서한을 보냈고 이와 함께 영국의 도라 러셀(Dora Russell) 등이 항의하였으나 허사였다. 국제여성민주연맹이 유엔에 재가입한 것은 1967년 6월이 되어서였다. 연맹은 복귀하자마자 여성들의 권익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하였다. 1972년 세계 여성의 해를 지정할 것을 제안한 사람은 국제여성민주연맹의 회장, 핀란드의 헤르타 쿠시넨(Hertta Kuusinen)이었다.⁹⁾

세계 여성의 해 1975년

그리고 유엔여성10년(1976~1985)

세계 여성의 해는 전 세계적으로 기대 이상의 영향을 미쳤고 이후 유엔여성

10년(UN Decade for Women)이 선포되기에 이른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여성 운동은 1975년 멕시코, 1980년 코펜하겐, 1985년 나이로비와 1995년 북경 유엔세계여성회의의 영향을 받아 시작되었다. 각 회의에서는 유엔의 공식 회의와 비정부기구 포럼이 동시에 개최되었고, 해를 거듭하며 그 규모와 다양성이 확장되었다.¹⁰⁾ 처음 두 회의에서는 남반구와 북반구 여성들 사이의 의견충돌이 있었다. 그러나 나이로비 회의에서는 "남

반구 여성들이 [...] 보다 자유롭게 남녀 관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북반구 여성들이 [...] 여성문제가 양성평등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몸소 깨닫고 여성들이 처한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국 범세계적 요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자 비로소 합의의 틀을 이룰 수 있었다. [...] 신시대를 위한 여성 발전 대안(DAWN: Development Alternatives with Women for a New Era)과 같은 새로운 국제 페미니스트 단체들이 생겨났다.¹¹⁾

1979년에 유엔은 여성인권 및 양성평등의 원칙을 국제법 조항에 통합하여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EDAW: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을 채택했다.¹²⁾ 그러나 이 협약이 필요했다는 것은 여전히 남녀가 동등하게 보편적 인권을 향유하지 못했음을 암시한다. 만약 그랬다면 여성차별 철폐를 위한 협약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¹³⁾

1985년 이후의

여성인권을 위한 투쟁

1985년 이후로 '여성인권'은 점차 포괄적이고 영향력 있는 개념으로 변화하

여, 1993년 비엔나에서 개최되었던 세계인권회의에서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마침내 여성인권은 별개나 별개의 것이 아닌 온전한 인권으로 확실히 인정받게 되었다.

또한 1979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데 반해, 1995년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된 북경행동강령(Beijing Platform for Action)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근절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¹⁴⁾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협약은 없지만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문 1325호와 성폭력 근절 노력에 대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지지에서 볼 수 있듯, 지금 유엔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안보, 인권, 전쟁범죄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모두를 위한 인권?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성투쟁의 다양한 단계를 이해하고 그동안 이루어낸 성과들의 역사성을 통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에 대한 억압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수천 년에 걸쳐 진행된 역사적인 현상이다.¹⁵⁾ 프랑스 혁명 당시 프랑스 정부가 '여성과 여성시민의 권리선언(Declaration of the Rights of Woman and the Female Citizen)'을 작성했던 올랭프 구즈(Olympe de Gouges)를 단두대에서 처형했던 것이 불과 200여 년 전 1793년이다. 1945년 이후 유엔은 국제연맹 내 페미니스트들이 이룬 업적을 기반으로 초국가적 기구가 되었고, 정부와 국제 여성단체를 대표하는 여성들과 유엔에서 일하는 여성들 간의 노력과 협력 덕에 예상 밖의 여성인권 대모¹⁶⁾가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서, 특히 1975년 이후에 국제 여성운동은 지구적 풀뿌리 여성 운

동으로 변화하였고, 북반구의 엘리트 여성의 영향력은 점차 감소하였다.¹⁷⁾ 뿐만 아니라 유엔 정책에서 희생자, 객체로서의 여성에서 행위 주체자로서의 여성으로 담론의 변화가 일어났고 여성에 대한 역량 강화가 강조되기에 이르렀다.¹⁸⁾

1940년 이후 여성인권의 의미가 대폭 확장된 것은 여성운동의 성장 및 다양성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또 하나의 발전이다. 주로 서구국가들이 우선시하는 법적 해석으로부터 정치적 권리와 똑같이 중요한 권리로서 사회경제적 권리의 인정, 가족계획에 관한 권리 - 예를 들어 여성이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통제할 권리 - 폭력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리에 이르기까지 그 의미가 확장되었다. 여성의 인권이라는 개념은 1993년 이후 보다 널리 인정받고 있으며 여성인권과 개발(최근에는 '지속가능한 개발'), 평화와의 연관성은 더욱 명확해졌다.

앞으로의 과제

그러나 앞에 놓인 과제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는 것은 이루어낸 성과를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공식적 차원에서 여성인권이 거의 보편적으로 인정받고는 있지만 유엔 양성평등 지수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 하위권에 속하는 국가에 상관없이 종속적 지위의 뿌리 깊은 구조와 억압은 만연해있다.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더군다나 반국가 부국 사이의 격차는 증대되었고 다양한 종교 원리주의자들의 출현한 탓에 여성인권이 많은 곳에서 위협받고 있다.¹⁹⁾

문해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여성들은 여전히 세계 문맹인구의 거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들은 세계 빈민(하루에 1달러 이하의 소득으로 살아가는)의 2/3를

차지하고, 세계 노동의 2/3를 담당하고 있으며 세계 식량의 50%를 생산하고 있지만 이들이 버는 소득은 전체의 10%에 불과하며 재산은 겨우 1%만을 소유하고 있다.²⁰⁾ 이 수치는 몇십 년 전 처음 발표되었을 때와 거의 같은 수치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게다가 여성에 대한 폭력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심각하다. 유엔여성발전기금(United Nations Development Fund for Women)은 "폭력이 15세에서 44세 여성들의 사망과 장애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하고 있다.²¹⁾

따라서 그 동안 얻어진 성과가 무엇이든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 대부분의 여성에게 인권은 아직도 문서로만 존재한다. "세계의 여성들은 정부가 말이 아닌 행동을 보여주길 원한다."²²⁾ 전 지구적 여성운동의 관심이 유엔에서 지구적 정의 운동으로 향하고 있는 지금의 변화²³⁾가 도움될지는 좀 더 두고 볼 일이다. **unc**
(번역자 : 박수연)

마주

1. 나는 나에게 이 글에 사용할 자료를 추천해준 암스테르담 여성사학기관의 사라 드 종과 알레트 스트리츠랜드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미네바 베르나디노에 대한 질문에 대답해준 UCLA의 앨런 두보이스에게도 감사한다.
2. 국제여성청정권협약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IAW는 1926년에 참정권과 평등시민권을 위한 국제여성연맹으로 재명명되었고, 1946년에는 국제여성연맹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3. 밀러 1994, 완슬로우 1996.
4. IAW 회의 보고서들: 레이크 2001, 밀러 1994, 오펜 2001, 위틱 1979, 변화가는 세상속의 여성들 1966년.
5. 콜더트 2004, 갈리 1996, 파에릴라 2007, 위틱 1979, 소위원회는 1947년 정식위원회로 변경되었다.
6. 파에릴라 2007, 12.
7. 파에릴라 2007, 18.

문해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여성들은 여전히 세계 문맹인구의 거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그들은 세계 빈민의 2/3를 차지하고, 세계 노동의 2/3를 담당하고 있으며 세계 식량의 50%를 생산하고 있지만 이들이 버는 소득은 전체의 10%에 불과하며 재산은 겨우 1%만을 소유하고 있다.

8. IAW 회의 보고서들: ICW 소식지, CSW 보고서.
9. 1970년 이후로 협의지위 A,B,C는 12,3으로 변경됨. ICW, IAW, WDF는 1969년과 1975년 사이에 유엔 연보 출처 협의지위 B 또는 2에서 협의지위 A 또는 1로 승급함.
10. 파에릴라 2007, 21.
11. IAW, CEDAW의 기획안들 중 내가 가장 먼저 본 기획안은 1972년 2월 23일 WDF에 소속된 호주 여성연맹이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내는 편지 안에 있었다.
12. 이 회의들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사이트 참조(<http://www.un.org/womenwatch/directory/>). 파에릴라 2007 또한 온라인상으로 확인 가능.
13. 스나이더 2006, 36, 월터 2001, xxi(2)도 참고.
14. 파에릴라와 비커스 1996, 126.
15. 파에릴라 2007, 27.
16. 파에릴라 2007, 30~32.
17. 러너 1996.
18. 스나이더 2006.
19. 안트로버스 2004, 바수 1996, 페리오 트립 2006, 프레이저와 톱커 2004, 제인 2006, 피터스와 월피 1996.
20. 진서 2002.
21. 예시 참조: http://www.un.org/gender_issues/women_poverty_economics/.
22. http://www.un.org/gender_issues/violence_against_women/facts_figures.php.
23. 웨도 2005, 하코트 2006, 1601 인용됨.
24. 하코트 2006, 1.